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1. 11 | No.146

차 례

I. 해외 경제 동향

1. 대외 여건 동향	5
(1) 세계 경제	5
(2) 국제금융·유가	6
2. 주요국 산업 동향	7
(1) 중국	7
(2) 미국	11
(3) 일본	13
(4) 유로존	14

II. 국내 실물 경제

1. 국내 경기	16
2. 고용	18
3. 물가	19
4. 금융·외환	20
5. 수출입	22

III. 주요 산업별 동향

1. 제조업	23
(1) 총괄	23
(2) 자동차	26
(3) 조선	28
(4) 일반기계	29
(5) 철강	31
(6) 정유	32
(7) 석유화학	33

(8) 섬유	34
(9) 가전	36
(10) 무선통신기기	37
(11) 반도체	38
(12) 디스플레이	39
2. 서비스산업	41
(1) 생산	41
(2) 고용	44
(3) 서비스수지	46

IV. 지역별 동향

1. 개관	48
(1) 생산	48
(2) 고용	49
(3) 수출	51
2. 지역별 동향	52
(1) 수도권	52
(2) 충청권	54
(3) 호남권	56
(4) 대경권	58
(5) 동남권	59
(6) 강원·제주권	61

KIET 산업동향 브리프

KIET INDUSTRY BRIEF

2021. 11 | No. 146

발행인 주현
편집인 김인철
발행일 2021년 11월 30일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홈페이지 <http://www.kiet.re.kr>
구독문의 044-287-3215
인쇄처 (주)프리비

I

해외 경제 동향

01 대외 여건 동향

(1) 세계 경제

- 미국은 9월 중 생산 감소와 소비 둔화 등 실물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체감 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지면서 불안정한 경기 여건을 반영
 - 3분기 중 개인소비가 소폭 증가(전기비 12.0% → 1.6%)에 그친 데다, 설비투자도 감소 전환(12.1% → -3.2%)하면서 전기비 증가율이 2.0%로 하락
- 일본은 8월 중 생산과 소비의 동반 감소, 유로존에서는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이 나타나면서 실물 지표들의 부진 및 혼조세가 이어지는 양상
 - 일본은 경기선행지수가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실물 경기 여건의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유로존 역시 경기체감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가중
- 중국은 9월 생산 등 국내 공급 지표들이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소비와 수출 등 대내외의 수요 지표들의 증가세가 전월보다 확대된 모습
 -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은 내·외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전분기보다 낮은 4.9%에 그치면서 2020년 3분기 이후 최저치로 하락

주요국의 실물 지표 추이

단위: 전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미국	실질GDP ¹⁾	2.3	-3.4	6.3	6.7	2.0				
	산업생산	-0.8	-7.2	1.0	1.6	1.1	0.5	1.0	-0.1	-1.3
	소매판매	3.3	0.3	8.0	6.5	-0.7	0.9	-1.6	0.9	0.7
	무역수지 ²⁾	-576.3	-676.7	-206.1	-208.4	-224.1	-73.2	-70.3	-72.8	-80.9
일본	실질GDP	0.0	-4.7	-1.1	0.5	-				
	광공업생산	-2.7	-10.6	2.8	1.2	-	6.5	-1.5	-3.6	-
	소매판매	0.1	-3.5	0.4	-2.1	-	3.1	1.0	-4.0	-
	무역수지 ²⁾	-1,668	563	542	434	-	379	436	-637	-
유로	실질GDP	1.4	-6.5	-0.3	2.2	-				
	산업생산	-1.4	-8.5	1.2	0.1	-	0.2	1.4	-1.6	-
	소매판매	2.4	-1.0	-1.3	3.9	-	1.9	-2.6	0.3	-
	무역수지 ²⁾	220.5	234.6	56.9	44.5	-	17.5	20.7	4.8	-
중국 ³⁾	실질GDP	6.0	2.3	18.3	7.9	4.9				
	산업생산	5.7	2.8	24.6	9.0	4.9	8.3	6.4	5.3	3.1
	소매판매	8.0	-3.9	34.0	14.1	5.1	12.1	8.5	8.9	7.3
	수출(달러화)	0.5	3.6	48.7	30.3	24.4	32.2	19.3	25.6	28.1

자료: 미 상무부, 연준, 일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유로 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주: 1) 연율 환산 기준, 2) 각각 자국 통화 10억 기준, 3)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2)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및 유가 상승 전환

- 달러화는 지난 10월 중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관련 불확실성 완화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 등으로 약세를 보인 이후, 11월 들어서는 연준의 테이퍼링 개시 확인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 전환
 - 미 달러화 가치는 10월에 엔화 및 유로화 대비 각각 2.4%와 0.2% 상승

주요 국제가격 추이

단위: 기말 기준, %, 달러/배럴

	202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0일
엔/달러	106.57	110.72	109.31	109.58	111.11	109.72	110.02	111.29	113.95	113.91
달러/유로	1.2075	1.1730	1.2020	1.2227	1.1858	1.1870	1.1809	1.1580	1.1558	1.1479
미 국채 (10년 만기)	1.40	1.74	1.63	1.59	1.47	1.22	1.31	1.49	1.55	1.55
WTI유	61.5	59.2	63.6	66.3	73.5	74.0	68.5	75.0	83.6	81.3
두바이유	63.1	62.4	64.5	66.6	73.0	73.3	69.4	75.9	81.9	83.2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 유가는 10월 중 산유국들의 증산 속도 유지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지속, 달러화 약세 등으로 배럴당 80달러대까지 상승하고, 11월 들어서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세 등의 영향으로 일시 하락한 이후에 다시 상승 전환
 - WTI유와 두바이유는 10월 중 9.5%와 9.4% 상승, 연초 대비 72.4%와 63.1% 상승

02 주요국 산업 동향

(1) 중국

□ 9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3.1%로 경기 둔화 우려

- 9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3.1%로 7월 6.4%, 8월 5.3%에 이어 성장세에서 이탈하여 경기 둔화 우려
 - 광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3.2%
 -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2.4%
- 9월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을 소유제별로 보면, 국유기업과 주식제기업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민영기업은 낮은 편

중국의 주요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상반기	연간	상반기	7월	8월	9월
공업 전체		5.7	-1.3	2.8	15.9	6.4	5.3	3.1
섬유	방직	-5.9	-25.9	-15.7	11.8	7.2	4.0	-1.2
	화학섬유	12.5	-1.0	3.4	17.1	9.3	9.2	-2.0
화학	에틸렌	9.4	-0.8	4.9	26.6	23.5	15.3	9.3
	플라스틱원료	9.3	2.8	7.0	12.3	5.3	0.4	-4.7
	플라스틱제품	3.9	-9.6	-6.4	18.2	-0.1	1.5	-4.1
철강	선철	5.3	2.2	4.3	4.0	-8.9	-11.1	-16.1
	조강	8.3	1.4	5.2	11.8	-8.4	-13.2	-21.2
	강재	9.8	2.7	7.7	13.9	-6.6	-10.1	-14.8
비철금속		3.5	2.9	5.5	11.0	7.1	0.4	-1.6
기계	금속절삭기계	-18.8	-7.7	5.9	45.6	27.5	23.1	2.1
	소형 트랙터	3.0	-29.7	-47.2	27.6	-29.4	0	-29.4
	대기오염방지설비	-13.7	-22.5	-21.1	25.6	-6.9	-8.5	0.7
	발전설비	-15.0	16.7	30.3	17.4	-8.8	25.2	-7.9
자동차		-8.0	-16.5	-1.4	26.4	-15.8	-19.1	-13.7
조선		9.3	-10.4	-8.2	19.1	-22.8	3.1	-27.3
전자	세탁기	9.8	-7.2	3.9	33.5	4.2	-10.0	-12.2
	냉장고	8.1	-6.9	8.4	18.8	-18.3	-19.0	-18.5
	에어컨	6.5	-16.4	-8.3	21.0	2.8	4.3	-6.9
	컬러TV	-2.9	-2.5	4.7	5.6	-24.6	-19.3	-14.6
	컴퓨터	6.9	5.2	16.0	40.6	8.5	9.7	8.3
	반도체	7.2	16.4	16.2	48.1	41.3	39.4	21.4
	휴대폰	-6.0	-13.3	-9.5	21.1	-2.1	-7.2	-5.2
서비스	화물운수	5.5	-7.8	-0.5	24.6	7.8	5.2	2.0
	여객운수	-1.9	-54.8	-45.1	11.1	-6.6	-44.1	-30.2
	우편 ³⁾	31.5	22.4	29.7	34.4	22.7	21.9	17.7
	통신 ³⁾	62.9	28.3	28.1	28.3	25.5	25.5	31.6
	소매업	7.9	-8.7	-2.3	20.6	7.8	3.3	4.5
	음식숙박업	9.4	-32.8	-16.6	48.6	14.3	-4.5	3.1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경제경기월보」, 각 월호.

주: 1) 산업 전체는 부가가치 증가율.

2) 비교가격 기준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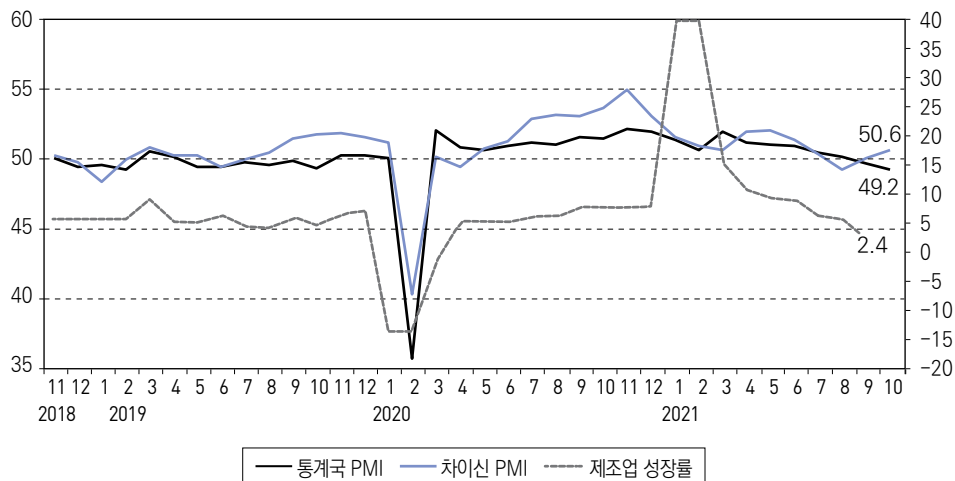
3) 각 월 1월부터 누계 기준.

- 국유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4.5%로 상대적으로 양호
- 민영기업은 2.8%로 크게 낮은 수준
- 주식제기업은 4.0% 수준
- 9월 업종별 생산량을 보면 에틸렌, 금속절삭기계, 컴퓨터와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
 - 섬유업종은 전년동기비 방직과 화학섬유가 각각 1.2% 및 2.0%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 화학업종은 에틸렌이 9.3% 증가하였으나, 플라스틱원료와 플라스틱제품이 각각 4.7% 및 4.1% 감소
 - 철강업종은 선철(-16.1%), 조강(-21.2%), 강재(-14.8%) 등 모든 품목에서 큰 마이너스 증가세를 시현했는데, 전력 공급 제한에 따른 생산량 축소 반영
 - 비철금속은 1.6%의 첫 마이너스 증가 기록
 - 기계업종은 금속절삭기계(2.1%)와 대기오염방지설비(0.7%)가 겨우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소형 트랙터(-29.4%), 발전설비(-7.9%)는 마이너스 증가세를 시현
 - 자동차는 반도체부품 등의 부족으로 13.7%의 마이너스 증가세를 지속
 - 조선업도 27.3%의 다시 마이너스 증가로 전환
 - 전자업종에서 반도체(21.4%)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컴퓨터(8.3%)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탁기(-12.2%), 냉장고(-18.5%), 에어컨(-6.9%), 컬러TV(-14.6%), 휴대폰(-5.2%) 등은 감소세를 지속
- 9월 서비스업 생산도 증가세가 둔화되고, 여객운수에서는 마이너스 증가
 - 화물운수(2.0%)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여객운수(-30.2%)는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
 - 9월 우편과 통신은 각각 17.7%, 31.6%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
 - 소매업은 4.5% 증가하고, 음식숙박업은 3.1%의 증가세로 전환

□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49.2로 경기 위축 반영

- 10월 중국 국가통계국의 제조업 PMI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49.2로 지난달에 이어 임계치 이하를 기록하며 경기 둔화 반영
 - 생산지수는 1.1포인트 하락한 48.4로 생산량 감소
 - 신규주문지수는 0.5포인트 하락한 48.8로 시장 수요 부족
 - 부품재고지수는 1.2포인트 하락한 47.0으로 재고 부족 지속
 - 종업원지수는 0.2포인트 하락한 48.8로 고용 부족 여전
 - 원자재배송시간지수는 1.4포인트 하락한 46.7로 원자재 공급 지연 현상이 지속
- 제조업 PMI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형기업은 임계치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형기업과 소형기업은 임계치 이하로 경기 둔화 지속
 - 대형기업은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50.3으로 임계치 이상 유지
 - 중형기업은 1.1포인트 하락한 48.6으로 임계치 이하 지속
 - 소형기업은 전월과 같은 47.5로 기준치 이하 지속

중국 관방 및 민간 제조업 PMI 변동 추이



자료: 국가통계국(www.stats.gov.cn), Markit(www.markiteconomics.com).

- 10월 Caixin PMI(財新中國通用製造業, 이하 민간치)는 전월보다 0.6포인트나 상승한 50.6으로 6월 이후 중국 제조업이 다소 회복하는 기미
 - 10월 상승한 이유는 4개월 연속 신규 주문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해석되며 주로 국내 수요의 회복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비록 전반적으로 신규 업무는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업 생산은 아직 하락세이고 최근 전기 공급 제한, 원재료 부족, 비용 상승 등이 제조업 회복을 저해
 - 생산이 감소하면서 제조업 고용과 구매 활동도 하락하고, 이는 투입재의 재고를 낮추었으며, 최종재의 재고도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
 - 공급망 지연이 확대되면서 투입재의 리드타임이 증가하고, 재고 부족과 전기 공급의 부족이 공급업체 성과를 하락
 - 소재, 에너지, 교통 등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10월은 투입재 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
 - 중국 제조업체의 향후 1년에 대한 생산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거나, 지난 9월 이후 다소 완화하는 추세이며, 일부 기업은 공급망 붕괴나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

(2) 미국

□ 9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5.0% 증가

-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생산 증가
 - 자동차·부품은 유일하게 전년동월비 감소를 기록한 업종으로, 9월에는 14% 감소하며 지난달 실적(-8.7%)보다 악화
 - 그러나 대부분 주요 제조업종이 증가하며 제조업 전체 생산은 전년동월비 5.0% 증가
 - 항공우주는 17.3% 증가를 기록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업종
 - 그 외 통신기기(15.1%), 1차 금속(13.5%), 정유(11.4%)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며 제조업 생산 증가를 견인

미국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제조업 전체	-6.4	-2.4	-0.1	17.6	6.4	8.4	5.9	5.0
식품	-2.6	-1.5	-0.5	7.6	1.3	2.6	1.0	0.5
제지	-4.3	-3.6	-5.8	3.8	5.3	5.4	5.9	4.7
정유	-13.0	-11.6	-7.5	23.8	13.1	13.6	14.2	11.4
화학	-2.6	0.0	-3.4	10.1	7.9	9.5	8.2	5.9
플라스틱·고무	-7.6	-2.0	-0.8	18.5	5.3	7.8	4.6	3.8
1차 금속	-13.4	-6.3	-3.5	33.2	18.1	24.3	17.0	13.5
금속제품	-7.6	-5.8	-3.5	9.4	5.6	7.0	5.9	3.8
기계	-6.1	-0.4	3.3	23.1	10.6	14.2	9.3	8.5
컴퓨터·주변기기	14.1	19.7	14.2	21.2	10.6	11.9	11.0	8.8
통신기기	12.4	13.0	9.9	12.4	15.5	15.7	15.8	15.1
반도체·전자부품	3.7	5.8	10.6	16.0	9.7	10.9	10.3	8.1
자동차·부품	-15.7	2.4	4.8	85.9	-10.5	-8.7	-8.7	-14.0
항공우주	-20.1	-17.2	8.5	37.6	19.5	23.7	17.9	17.3

자료: 미 연준(https://www.federalreserve.gov/releases/g17/ipdisk/ip_nsa).

● 3분기 제조업 생산, 전년동기비 6.4% 증가

- 3분기 생산 실적은 2분기(17.6%) 실적보다는 감소했으나 전년동기비 6.4% 증가를 기록
- 항공우주가 전년동기비 19.5%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1차 금속(18.1%), 통신기기(15.5%), 정유(13.1%), 기계(10.6%), 컴퓨터·주변기기(10.6%)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업종
- 자동차·부품은 유일하게 감소(-10.5%)를 기록하며 부진

(3) 일본

□ 9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2.2% 감소

● 9월 제조업 생산, 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기록

- 제조업 생산은 수송기계와 플라스틱제품의 생산 부진으로 전년동월비 2.2% 감소
- 특히 수송기계는 38.1% 감소로 가장 큰 폭의 생산 감소를 기록, 지난달(-7.0%)에 이어 감소 지속
- 플라스틱제품도 7.0% 감소하며 부진

일본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연간	4/4	1/4	2/4	3/4	7월	8월	9월
제조업 전체	-10.3	-3.5	-1.1	19.9	5.8	11.6	8.8	-2.2
강철·비철금속	-14.6	-4.3	-0.4	34.4	19.9	29.9	20.4	10.5
금속제품	-11.5	-6.0	-0.6	15.9	5.7	7.9	8.5	1.2
생산기계	-10.3	-1.3	11.3	25.6	32.7	31.1	41.5	27.3
일반용·업무용기계	-12.1	-3.5	-1.2	22.9	19.2	18.1	21.7	18.2
전자부품·기기	1.4	5.2	9.7	23.8	17.2	24.0	20.2	8.9
전기·정보통신기기	-9.7	-0.6	5.1	21.8	5.8	11.8	6.9	-0.4
수송기계	-17.4	-1.5	-7.1	54.5	-13.3	11.0	-7.0	-38.1
요업·토석제품	-8.5	-4.7	-3.9	13.4	8.5	11.3	10.6	4.0
화학공업(의약품 제외)	-12.5	-10.7	-5.4	9.3	6.8	7.5	5.9	7.0
석탄·석유제품	-15.5	-12.6	-11.4	0.9	7.6	3.0	8.7	10.9
플라스틱제품	-6.3	-1.0	-0.7	14.8	1.7	7.0	5.9	-7.0
펄프·종이·가공품	-9.7	-5.8	-5.0	9.2	7.7	10.0	10.4	3.1
식품·담배	-3.0	-3.6	-2.9	0.7	-	-3.1	-0.5	-
기타 제조업	-13.2	-8.7	-5.3	14.9	10.3	12.5	11.9	6.8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통계자료(<http://www.meti.go.jp/english/statistics/>).

주: 2015=100

- 생산기계(27.3%), 일반용·업무용기계(18.2%), 석탄·석유제품(10.9%) 등이 크게 호조
- 3분기 제조업 생산, 전년동기비 5.8% 증가
 - 3분기 제조업 생산은 2분기(19.9%) 실적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비 5.8%의 증가를 기록
 - 생산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업종은 생산기계로 32.7% 증가
 - 강철·비철금속(19.9%), 일반용·업무용기계(19.2%), 전자부품·기기(17.2%)도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생산 증가를 기록
 - 그 외 대부분 업종에서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유일하게 수송기계는 13.3% 감소

(4) 유로존¹⁾

□ 9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5.8% 증가

- 9월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및 고무·플라스틱을 제외한 전 부문의 호조로 인해 전년동월비 5.8% 증가
 - 기계 제조는 가공공작기계(18.1%), 농업 및 임업용 기계(12.7%), 특수목적용기계(11.4%)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11.1% 증가
 - 정유의 경우 코크스오븐제품과 정유제품 생산이 각각 12.1% 및 8.6% 증가하며 9.6% 기록
 - 반면, 자동차의 경우 차체 및 트레일러와 부품이 확대되었으나(12.5%), 완성차(-35.9%) 및 부품(-15.3%)의 부진으로 인해 생산 증가율 하락
 - 고무·플라스틱 역시 플라스틱이 증가하였으나(0.4%), 고무 감소(-4.0%)로 인해 0.1% 감소
- 3분기 제조업은 자동차(-20.3%) 및 조선(-0.9%)이 부진하였으나, 기계(13.1%), 전자부품(11.6%), 1차 금속(9.7%) 등의 호조로 전년동기비 6.7% 증가

1)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의 19개 국가.

유로존 업종별 생산 현황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제조업 전체	-9.1	3.6	23.8	6.7	8.4	5.8	5.8
식음료	-2.4	-1.6	8.3	4.3	4.9	4.1	3.9
섬유	-12.8	2.3	33.8	6.3	12.6	-1.0	4.7
정유	-10.1	-8.4	6.8	7.1	4.8	7.1	9.6
화학	-2.5	2.5	13.1	6.0	6.8	6.1	5.0
고무·플라스틱	-8.6	5.5	30.5	3.0	7.4	1.7	-0.1
1차 금속	-13.1	3.9	35.6	9.7	17.5	7.7	4.3
조립금속	-12.0	6.2	32.7	7.8	11.8	6.9	4.7
기계	-12.7	4.1	24.3	13.1	15.6	12.5	11.1
통신기기	-14.2	9.7	27.5	5.2	3.3	4.6	7.2
전자부품	1.8	6.7	22.3	11.6	15.1	11.2	8.8
자동차	-23.8	-0.9	61.7	-20.3	-12.0	-21.4	-27.0
조선	-8.1	6.4	23.6	-0.9	-0.8	-5.5	2.0

자료: Eurostat(Index. 2015=100).

Ⅱ

국내 실물 경제

01 국내 경기

□ 3분기 실질GDP 0.3% 성장, 9월 전산업 생산 1.3% 증가

- 3분기 국내 실질GDP는 수출 확대 영향에도 소비와 투자가 동반 감소한 영향으로 전기비 성장률이 0.3%로 하락, 전년동기비 기준 4.0% 증가
 - 수출이 전기비 1.5% 증가로 전환한 반면에, 민간소비(-0.3%)와 설비투자(-2.3%)가 동반 감소한 데다, 건설투자의 감소폭(-3.0%)도 확대되는 등 전분기에 비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시현
- 9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이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이 증가로 전환된 영향으로 전월비 1.3%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증가세를 회복
 - 광공업은 제조업(전월비 -0.9%)에서 감소폭이 확대됨에 따라 전월비 0.8% 감소하였고, 서비스업은 2개월 만에 증가(1.3%)
 - 소매판매는 내구재(-1.7%) 감소에도 불구하고, 준내구재(5.1%)와 비내구재(5.1%)가 동반 증가하면서 전월비 2.5% 증가한 반면에, 설비투자는 운송장비(-2.7%)와 기계류(-0.5%)의 감소로 전월비 1.0% 감소
 - 동행종합지수는 내수출하지수,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감소함에도 비농림어업 취업자 수, 건설기성액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월비 0.2% 상승하고, 선행종합지수는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등이 하락한 영향에도 기계류 내수출하지수가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보합

국내 실물 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20		2021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GDP성장률	-0.9*	-1.1* (1.1*)	1.9* (1.7*)	6.0* (0.8*)	4.0** (0.3**)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5.0*	-6.6* (-1.3*)	1.2* (1.2*)	3.7* (3.6*)	3.2** (-0.3**)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7.1*	6.1* (-0.6*)	12.4* (6.1*)	12.8* (1.1*)	4.3** (-2.3**)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0.4*	-2.9* (3.5*)	-1.8* (1.3*)	-1.2* (-2.3*)	-0.7** (-3.0**)	-	-	-	-
전산업생산지수	-1.2	-1.5 (1.6)	2.7 (1.7)	7.2 (0.4)	3.9* (0.5*)	6.4 (1.6)	4.5* (-0.7*)	5.9* (-0.2*)	1.4* (1.3*)
광공업생산지수	-0.4	0.0 (2.9)	4.4 (3.4)	12.7 (-1.2)	5.0* (0.5*)	11.5 (2.3)	7.8 (0.2)	9.7* (-0.7*)	-1.8* (-0.8*)
제조업생산지수	-0.3	-0.1 (3.1)	4.4 (3.4)	13.2 (-1.2)	5.1* (0.4*)	11.8 (2.5)	7.4 (-0.1)	10.2* (-0.4*)	-1.9* (-0.9*)
서비스업생산지수	-2.0	-2.0 (0.9)	2.2 (0.7)	5.7 (1.7)	3.9* (0.9*)	4.9 (1.6)	4.0 (0.1)	4.2* (-0.8*)	3.3* (1.3*)
소매판매액지수	-0.2	-1.2 (0.9)	6.4 (1.7)	4.4 (2.7)	5.1* (0.1*)	1.6 (1.4)	7.9 (-0.5)	3.8* (-0.8*)	3.7* (2.5*)
설비투자지수	6.0	2.8 (0.8)	11.9 (6.9)	12.7 (0.7)	6.0* (-2.3*)	10.6 (0.2)	11.0 (2.0)	12.4* (-4.6*)	-4.5* (-1.0*)
건설기성액	-4.1	-5.3 (2.5)	-7.2 (-3.6)	-5.3 (-2.4)	-5.7* (-1.4*)	-5.6 (-0.7)	-8.1 (-2.0)	0.1* (1.4*)	-8.4* (3.5*)
동행종합지수(2015=10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12.3 98.8	113.6 99.4	114.4 99.7	116.6 101.2	117.1* (101.2*)	116.8 101.2	117.0* 101.3*	117.1* 101.2*	117.1* 101.2*
선행종합지수(2015=100)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19.5 99.6	122.5 100.7	124.7 101.6	127.1 102.5	128.2* (102.4*)	127.9 102.8	128.1* 102.7*	128.2* 102.4*	128.2* 102.1*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02 고용

□ 9월 전산업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2.5% 증가

- 9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의 증가폭이 둔화된 영향에도 제조업에서 감소세 둔화가 이어지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증가세 확대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5개월 만에 최고치(1.9% → 2.5%)
 - 제조업의 감소폭이 전월보다 축소(-1.7% → -0.8%)
 - 농림·어업의 증가율이 전월보다 하락(2.4% → 1.4%)한 반면에, SOC·기타서비스업의 증가폭은 확대(2.6% → 3.3%)
 - 건설업의 증가율이 상당폭 하락(6.1% → 2.7%)한 반면에,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감소율은 2020년 2월 이후 최저(-2.7% → -1.5%)

산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산업	27,123	26,904	26,369	27,467	27,645	27,550	27,637	27,648	27,603	27,683
전년동기비	1.1	-0.8	-1.4	2.3	2.1	2.3	2.2	2.0	1.9	2.5
농림·어업	4.1	3.6	-0.2	0.2	1.5	-0.2	1.0	0.7	2.4	1.4
제조업	-1.8	-1.2	-0.6	0.1	-0.8	0.4	-0.2	0.1	-1.7	-0.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6	-1.0	-1.7	2.9	2.8	2.9	2.7	2.5	2.6	3.3
건설업	-0.7	-0.2	1.7	7.0	4.4	6.6	7.0	4.6	6.1	2.7
도소매·음식숙박업	0.0	-5.3	-6.9	-2.4	-2.6	-2.3	-2.7	-3.5	-2.7	-1.5
전기·운수·통신·금융	0.2	0.7	1.8	5.2	6.9	4.4	5.8	6.2	6.3	8.3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3.5	0.9	-0.4	4.3	4.1	4.6	3.9	4.2	3.7	4.3
실업률(계절조정, %)	3.8	4.0	4.4	3.7	3.0	3.8	3.7	3.3	2.8	3.0

자료: 통계청.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부문은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1% → -0.1%)을 제외하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0.1% → 11.6%)와 교육서비스(2.9% → 5.6%)를 비롯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4.8% → 5.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3.5% → 3.8%) 등에서 증가폭이 동반 확대됨에 따라 전체 증가세도 확대(3.7% → 4.3%)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0%로 다시 상승

03 물가

□ 10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상승, 전년동월비 3.2% 상승

- 10월 소비자물가는 보건(전월비 -0.1%), 통신(-0.4%) 등에서 소폭 하락한 반면, 교통(1.4%), 의류·신발(0.3%), 음식·숙박(0.4%) 등에서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0.1% 상승(전년동월비 3.2%, 2012년 1월 이후 최고치)

소비자물가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소비자물가	0.4	0.5	1.1 (1.2)	2.5 (0.5)	2.6 (0.8)	2.6 (0.1)	2.4 (-0.1)	2.6 (0.2)	2.6 (0.6)	2.5 (0.5)	3.2 (0.1)
근원물가	0.9	0.7	0.9 (0.6)	1.4 (0.6)	1.8 (0.5)	1.5 (0.3)	1.5 (0.1)	1.7 (0.1)	1.8 (0.3)	1.9 (0.3)	2.8 (0.3)

자료: 통계청.

주: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04 금융·외환

□ 9월 기업대출·가계대출 모두 증가세 지속, 11월 초(11월 1일~11월 10일) 금리 하락, 원/달러 환율 상승

- 9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모두 전월 수준을 유지하면서 높은 증가세 지속(2021년 8월 +7.9조 원 → 2021년 9월 +7.7조 원, 대기업 +0.3조 원, 중소기업 +7.4조 원)
 - 대기업 대출은 분기 말 일시상환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금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전월에 이어 소폭 증가하였고, 중소기업 대출은 분기 말 일시상환 등에도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지속되고 시설자금 수요가 확대되면서 증가 규모가 전월 수준 유지
 - CP는 전월에 비하여 감소폭이 확대되며 순상환 규모가 늘어났고, 회사채는 금리 상승 전망에 따른 선발행 수요 등으로 순발행으로 전환, 주식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지난달 크게 늘었던 기업공개가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상당폭 축소

기업 자금조달

단위: 기간 중 말잔 증감, 조 원

	2019		2020		2021				2021년 9월 말 잔액
	1~9월	9월	1~9월	9월	1~9월 중	7월	8월	9월	
은행 원화대출	37.7	4.9	97.1	5.0	72.6	11.3	7.9	7.7	1,049.0
(대기업)	-2.1	0.1	23.7	-2.3	4.2	2.3	0.3	0.3	176.0
(중소기업)	39.8	4.8	73.3	7.3	68.4	9.1	7.5	7.4	873.0
<개인사업자>	18.5	2.4	37.5	3.4	30.6	4.2	3.4	3.5	416.6
회사채순발행	13.5	0.6	13.8	0.5	16.9	1.5	-0.2	2.0	-
CP 순발행	5.7	0.0	5.6	-1.4	7.5	0.9	-0.2	-1.3	36.0
주식발행	4.1	0.1	5.9	0.9	24.9	1.8	6.6	1.8	-
은행 가계대출	39.4	4.8	69.6	9.6	63.9	9.7	6.1	6.5	1,052.7
주택담보대출	30.6	3.8	49.0	6.7	48.0	6.0	5.8	5.7	769.8
기타 대출	8.9	1.0	20.8	3.0	15.9	3.6	0.3	0.8	281.9

자료: 한국은행.

주요 금리 및 환율

단위: %, 원

	2020				2021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10일
국고채(3년)	1.07	0.84	0.85	0.98	1.13	1.45	1.59	2.10	1.88
회사채(3년, AA-)	2.08	2.25	2.19	2.21	2.06	1.97	2.05	2.57	2.42
CD(91일)	1.10	0.79	0.63	0.66	0.75	0.68	1.04	1.12	1.15
CP(91일)	2.20	1.51	1.11	1.09	1.00	0.97	1.18	1.24	1.31
원/달러	1,217.4	1,203.0	1,169.5	1,086.3	1,131.8	1,126.1	1,184.0	1,168.6	1,180.9
원/100엔	1,130.8	1,116.1	1,112.1	1,054.3	1,027.3	1,022.1	1,058.2	1,031.7	1,037.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감독원.

주: 기말 종가 기준.

- 9월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기타 대출이 늘어나면서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소폭 확대(2021년 8월 +6.1조 원 → 2021년 9월 +6.5조 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와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이어지면서 전월 수준의 증가세가 지속되었고, 기타 대출은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확대폭이 제한되며 소폭 증가에 그쳐
- 국고채(3년) 금리는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개시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과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조기 상환 조치(긴급 바이백)와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세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하락(11월 1일 2.11% → 11월 10일 1.88%, 0.23%포인트 하락)
-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가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하락에 연동되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위험선호 심리의 위축,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세, 결제수요 유입 등의 영향으로 상승(11월 1일 1,174.4원 → 11월 10일 1,180.9원, 6.5원 상승)

05 수출입

□ 10월 무역수지 흑자 16.9억 달러

- 지난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24.0% 증가한 555.5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37.8% 증가한 538.6억 달러, 무역수지는 16.9억 달러 흑자를 기록
 - 수출은 반도체 호조와 주요국 경기 회복에서 기인한 석유화학, 일반기계, 철강 등 중간재 수요 증가를 중심으로 신산업(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역시 고른 증가를 보이면서 전년동월비 24.0% 증가
 - 수입은 최근 내수 회복과 수출 경기 호조 등으로 1차 상품·중간재를 중심으로 증가(1차 상품 수입이 72.8% 증가, 중간재 42.1% 증가)

최근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수출	5,422 (-10.4)	5,128 (-5.4)	1,464 (12.5)	1,568 (42.1)	1,645 (26.5)	548 (39.8)	554 (29.6)	532 (34.8)	558 (16.7)	556 (24.0)
수입	5,033 (-6.0)	4,676 (-7.1)	1,363 (12.1)	1,490 (37.5)	1,568 (37.5)	504 (40.7)	537 (38.1)	516 (44.0)	516 (31.0)	539 (37.8)
무역수지	389	452	102	78	77	45	18	16	42	17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10월 실적은 잠정치.

Ⅲ

주요 산업별 동향

01 제조업

(1) 총괄

□ 9월 제조업 생산 전년동월비 1.9%, 전월비 0.9% 감소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30.6%), 통신·방송장비(13.6%), 기계장비(4.0%)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였지만, 자동차(-24.2%), 금속가공(-16.9%), 고무·플라스틱(-10.3%) 등에서 크게 줄어들며 전년동월비 1.9%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17.4%)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공업(-0.5%)과 경공업(-7.6%)이 감소세로 전환
 - 전월비 기준으로는 기계장비(3.6%), 전자부품(2.7%), 식료품(2.4%) 등의 업종이 늘어났지만, 자동차(-9.8%), 전기장비(-5.2%), 반도체(-1.6%) 등의 업종에서 줄어들면서 0.9% 감소
- 제조업 생산능력은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전자부품 등에서 줄어들었지만, 반도체, 화학제품, 기계장비 등의 업종에서 늘어나면서 전년동월비는 0.5% 증가하고, 전월비는 0.1%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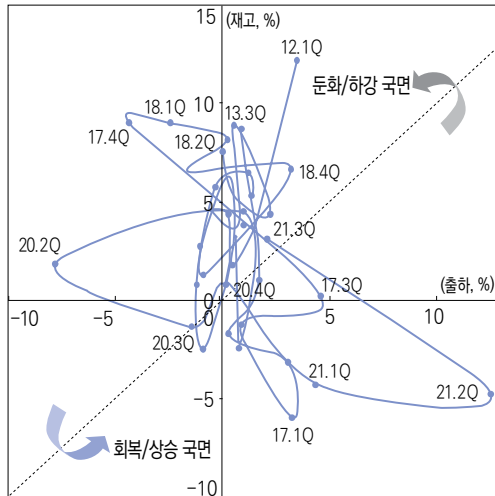
	가중치 (2019)	2019	2020	2021					
				2/4	3/4*	7월	8월*	9월*	전월비*
광공업(원지수)	10,000	106.7	106.3	113.7	111.7	115.8	109.3	110.1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4	-0.4	12.7	5.0	7.8	9.7	-1.8	-0.8
제조업(원지수)	9,484.5	106.6	106.3	114.4	112.1	115.9	109.4	110.9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5	-0.3	13.2	5.1	7.4	10.2	-1.9	-0.9
섬유	135.0	-5.9	-10.5	25.0	5.1	12.6	10.4	-6.3	-1.6
화학	883.8	-1.3	-3.0	15.7	7.5	11.6	9.4	1.7	-0.7
철강	454.3	-2.2	-6.3	13.3	12.0	19.3	14.7	2.8	0.5
반도체	1,285.6	11.7	22.7	27.2	33.9	34.7	36.8	30.6	-1.6
컴퓨터·주변장치	31.3	-8.0	-7.9	8.8	-7.6	3.4	-2.4	-22.6	-8.4
통신·방송장비	131.5	-2.8	-11.3	41.7	19.3	16.0	28.6	13.6	-4.1
의료·정밀·광학	218.0	-11.0	3.9	31.7	16.4	24.6	17.4	7.9	3.6
기계장비	819.2	-5.9	3.6	18.4	7.6	8.4	10.6	4.0	3.6
자동차	981.6	-0.5	-10.0	22.5	-8.6	-3.4	6.2	-24.2	-9.8
조선	206.3	17.6	8.6	-17.6	-22.7	-21.3	-22.1	-24.5	6.5
중공업	-	0.6	0.6	14.4	6.5	9.3	11.5	-0.5	-1.2
경공업	-	-0.6	-4.0	7.4	-1.5	-0.6	4.4	-7.6	0.3
제조업ICT	-	4.8	11.9	19.9	21.0	22.2	23.6	17.4	2.0

자료: 통계청.

주: *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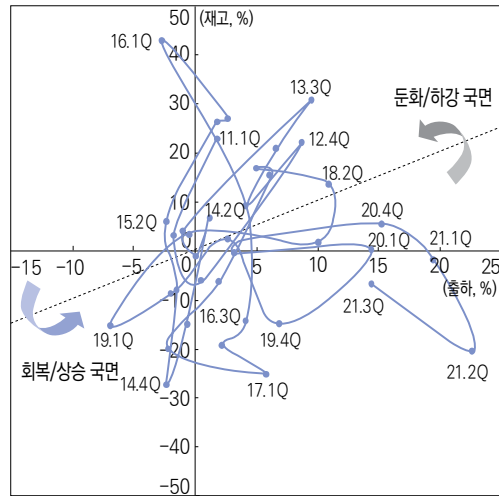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3.2%로 전월보다 1.1%포인트 상승하였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의 증가폭(11.5% → 2.7%, 계절조정치, 전년동월비)이 축소되었고, 재고가 증가세(-4.8% → 3.1%)로 전환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5%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하락

제조업 재고-출하 순환
(12.1Q~21.3Q)



자료: 통계청.

제조업ICT 재고-출하 순환
(12.1Q~21.3Q)



자료: 통계청.

□ 중간재 중심 수출 증가세 지속, 원자재 가격 인상 주시 필요

-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등의 중간재와 반도체, 컴퓨터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전체 수출을 견인
 - 반도체는 모바일과 PC 분야의 견조한 수요의 영향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두 자릿수 증가
 - 섬유는 동남아시아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IT 무선통신기기는 폴더블폰, 디스플레이는 OLED, 컴퓨터는 SSD를 중심으로 두 자릿수 증가
 - 다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안정 등의 요인으로 감소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가를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동차	5.3	-13.1	31.4	74.8	6.5	62.4	12.3	16.9	-6.1	-4.7
자동차부품	-2.5	-17.3	5.6	123.1	14.9	108.0	34.9	22.2	-5.2	-1.2
선박류	-5.3	-2.0	28.3	11.9	-1.9	41.3	9.4	38.2	-40.5	6.4
일반기계	-1.9	-8.8	-1.4	21.2	15.9	21.2	18.2	23.4	7.9	12.7
철강	-8.6	-14.4	7.5	50.6	45.3	51.6	41.5	53.5	41.7	48.6
석유화학	-14.8	-16.4	26.5	80.3	63.9	66.9	60.2	81.6	52.0	68.5
석유제품	-12.2	-40.6	-16.6	112.6	69.8	83.7	75.8	54.5	79.2	138.1
섬유	-8.0	-13.3	-8.3	46.1	9.9	36.4	17.4	19.0	-3.6	22.1
가전	-3.6	0.5	15.8	66.5	11.7	47.5	29.7	12.3	-4.1	13.9
무선통신기기	-17.6	-6.4	21.6	38.5	25.8	3.4	5.0	62.1	19.9	15.5
컴퓨터	-20.6	57.2	2.8	8.9	34.0	16.5	26.4	26.1	49.4	52.7
반도체	-25.9	5.6	14.0	29.7	36.3	34.4	39.6	42.6	28.2	28.8
디스플레이	-17.0	-12.3	16.3	36.0	25.2	28.2	38.0	23.7	17.3	5.3

자료: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0월 실적은 잠정치.

(2) 자동차

□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가 지속되며 생산과 내수 모두 감소

- 10월 내수는 차량용 반도체 문제 지속으로 큰 폭의 감소세 지속
 - 글로벌 자동차 생산 대수 감소의 여파로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전년동월비 20.0% 이상 감소
 - 국산차의 경우 생산량이 전월비 증가하며 내수가 16.0% 증가하였으나, 수입차는 공급 부족으로 전월비 8.0% 감소

자동차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0.5	-10.0	11.2	22.5	-8.6	-3.4	6.2	-24.2	-
	생산(전기비)	-	-	4.8	-6.7	-4.4	-4.1	3.1	-9.8	-
	출하	0.4	-9.6	11.5	23.3	-6.8	-1.3	5.4	-21.0	-
	재고	2.1	9.2	2.5	3.3	-0.3	2.1	4.4	-0.3	-
	가동률	3.6	-9.1	9.1	17.4	-12.3	-8.3	2.3	-26.6	-
	내수판매동향	-1.6	5.7	11.2	-12.9	-1.5	-9.8	-3.8	-29.8	-21.4
교역 동향	수출	2.4	-14.5	21.7	88.4	9.2	18.8	18.6	-5.8	-4.7
	수입	-1.1	7.3	22.5	37.2	13.2	58.4	8.2	-13.7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동향",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수입승용차등록자료".

주: 1)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2) 내수판매동향은 완성차 기준, 생산 및 교역은 완성차와 자동차부품 포함.

- 10월 수출은 전월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비 기준으로 2개월 연속 감소
 -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로 완성차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완성차가 4.7% 감소하였고, 해외 생산량도 감소하였으며 자동차부품도 1.2% 감소
 - 하지만 전기차는 48.3% 증가하며, 자동차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
- 9월 생산은 조업일수 감소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로 감소로 전환
 - 일부 생산공장이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감산하거나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생산, 출하, 재고가 감소하였으며, 가동률 역시 크게 하락
 - 3분기 생산도 코로나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가 지속되며 전년동기비 감소

(3) 조선

□ 생산 지표 침체 지속, 수출은 증가로 전환

- 9월 말 기준 세계 선박 누적 발주량은 공급망 문제로 인한 컨테이너선 발주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비 116.0% 증가한 3,750만 CGT를 기록했으나 2년 전의 저조한 발주에 따른 영향으로 생산 지표의 침체는 지속
 - 시장의 수급보다 공급망 등 인프라 영향에 따른 항만 정체 등으로 컨테이너선 발주가 늘었고, 최근 벌크선 발주가 증가하면서 9월 누적 수주량은 전년동기비 약 124.0% 증가한 1,460만 CGT를 기록
 - 누적된 일감인 9월 말 기준 수주잔량은 약 2,860만 CGT로 전월 대비 증가했으나, 중국의 3,540만 CGT에 이어 2위로 나타났고, 건조량도 840만 CGT로 나타나 중국의 1,020만 CGT에 이어 2위를 기록
 - 신조선가 지수는 급등한 강재가의 선가 반영으로 9월 말 기준 149로 18.0% 상승하였고, 해운의 BDI 지수는 철광석 운송 감소로 11월 1일 3,428로 하락, 컨테이너선 HR 지수는 공급망 영향으로 4,821의 높은 수준을 유지

조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7.6	8.6	-15.6	-17.6	-22.7	-21.3	-22.1	-24.5	-
	생산(전기비)	-	-	-14.3	-4.0	-2.7	1.1	-4.4	6.5	-
	출하	20.0	7.2	-17.2	-18.1	-21.6	-20.9	-20.7	-23.5	-
	가동률	42.3	21.1	-9.2	-11.0	-19.3	-17.5	-18.8	-21.6	-
교역 동향	수출	-5.2	-2.0	28.3	11.9	-1.9	9.3	38.1	-40.5	6.4
	수입	-9.7	44.4	-3.6	-5.6	40.1	63.9	247.9	-39.5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 10월 수출은 순차적으로 건조가 완료된 탱커, LNG 및 LPG 운반선, 제품 운반선 등 주력 선종의 인도가 진행되었고 전년 동월의 수출실적이 월평균 규모를 하회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로 전환
 - NYK 등에서 발주한 대형 LNG 운반선, Nisshin Shipping의 제품 운반선 및 LPG 운반선, MSC의 24,000TEU 컨테이너선 등의 인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고 전년 동월의 수출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6.4% 증가로 전환
- 9월 수입은 일부 엔진이 늘고 일본에서의 벌크선 및 탱커가 늘었으나 대중국 벌크선이 큰 폭으로 줄었고, 선박용 부품과 편의지적선이 줄면서 감소로 전환
 - 일본에서 탱커 35.0%, 벌크선 419.6% 늘었으나 대중국 벌크선이 80.7% 줄었고, 선박용 부품이 8.3% 준 것 외에 선박용 압축점화식 및 불꽃점화식이 줄면서 9월 수입은 39.5% 감소로 전환

(4) 일반기계

□ 생산 증가세 둔화, 수출은 8개월 연속 증가 지속

- 9월 생산은 전월비 3.6% 증가하였지만,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비 4.0% 증가로 증가세 다소 둔화
 - 내수출하, 설비투자, 기계수주는 두 자릿수 증가세에서 둔화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견조한 증가 흐름을 유지
 - * 기계류 내수출하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1년 7월) 5.7 → (8월) 4.1 → (9월) 1.6
 - * 기계류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1년 7월) 9.9 → (8월) 12.5 → (9월) 4.8
 - * 국내 기계수주 증가율(전년동월비, %): (2021년 7월) 54.1 → (8월) 31.4 → (9월) 14.6
 - 재고율(재고/출하)은 재고 감소(-4.0%)의 영향으로 전월비 하락
 - * 재고율(%): (2021년 7월) 108.4 → (8월) 109.8 → (9월) 103.0
 - 기간 상승세를 지속하던 가동률도 조업일수 영향으로 1.1% 하락으로 전환

일반기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5.9	3.6	9.4	18.4	7.6	8.4	10.6	4.0	-
	생산(전기비)	-	-	2.2	2.1	-1.2	-0.1	-2.7	3.6	-
	출하	-5.1	1.6	8.0	19.3	7.0	9.6	9.3	2.3	-
	재고	2.6	8.4	14.1	19.3	13.3	19.9	20.2	13.3	-
	가동률	1.0	-6.6	-4.7	11.9	4.7	4.1	12.0	-1.1	-
교역 동향	수출	-1.9	-8.9	-1.4	21.2	15.8	18.2	23.4	7.8	7.9
	수입	-3.6	-0.2	12.7	14.0	5.6	3.4	10.9	3.1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 10월 수출은 전 세계 생산설비,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기계류 수요 증가로 전년동월비 7.9% 증가한 43억 8,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10월 수출실적 달성
 - 주요 수출국 제조업 생산과 건설투자 활성화로 가공·공작기계, 건설·토목 장비가 수출 증가를 견인
 - 수출 비중이 높은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중동, 인도, 중남미 등 대부분 권역으로의 수출 증가세 지속
 - * 10월 주요국 수출(억 달러) 및 증가율(전년동월비): 중국(18.7, 9.0%), 미국(7.1, 40.5%), 중남미(1.9, 41.0%), 일본(1.8, 27.3%), 중동(1.2, 18.0%)
- 9월 수입은 전년동월비 3.1% 증가한 25억 5,700만 달러 기록
 - 주요 품목별로는 운반하역기계(68.8%), 제지인쇄기계(44.0%), 건설광산기계(37.3%), 금형(34.7%) 등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섬유 및 화학기계(-45.8%), 압연기 및 주조설비(-36.6%) 등은 감소

(5) 철강

□ 내수 회복 뚜렷, 수출은 가격 요인으로 증가 지속

- 9월 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수입 급증에 의해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며 생산은 전년동기비 2.8% 증가
 - 자동차 등 주요 수요산업의 회복으로 판매량 수요가 약 40%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판매량 생산이 5.1% 증가하며 전체 생산 증가를 주도
 - 반면 봉형강류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수입 급증으로 생산이 5.1% 감소
-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48.5% 증가하며 6개월 연속 40% 이상의 높은 증가율 기록
 - 국내 우선 공급으로 수출 물량은 감소하였으나 석탄 가격 상승이 철광석 가격 하락을 상쇄하며 높은 수준의 철강 가격이 유지됨에 따라 금액 기준 수출은 지속 증가세
 - * 글로벌 철강 가격지수/상승률: (2020년 10월) 109.7 → (2021년 10월) 198.9 (81.3%)
 - * 주요 지역별 수출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EU 131.2%, 미국 97.0%, 인도 94.4%, 일본 37.4%, 베트남 18.5%, 중국 2.9%

철강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2	-6.3	-1.9	13.3	12.0	19.3	14.7	2.8	-
	생산(전기비)	-	-	0.0	1.8	2.5	2.2	-0.8	0.5	-
	출하	-2.0	-6.1	2.2	17.7	5.4	13.9	5.8	-2.5	-
	재고	-0.3	-16.8	-19.3	-26.1	-5.6	-20.4	-11.2	-5.6	-
	가동률	-2.1	-6.0	-1.5	13.7	12.2	19.9	14.7	2.7	-
교역 동향	수출	-8.6	-14.5	7.5	50.4	45.2	41.5	53.4	41.6	48.5
	수입	-0.9	-24.7	3.3	40.5	113.1	123.8	124.9	91.6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 9월 수입은 내수의 빠른 회복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비 91.6% 증가
 - 대다수 품목에서 높은 증가가 나타난 가운데 철스크랩 등 원부자재 역시 급증
 - * 주요 지역별 수입 증가율(금액 기준, 전년동월비): 인도 466%, 러시아 382%, 미국 96.0%, 중국 92.8%, 일본 87.6%

(6) 정유

□ 수출은 8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9월 생산은 내수 및 수출 확대로 전년동월비 7.3% 증가
 - 내수는 병커C유를 제외한 전반적 석유제품 수요 확대로 11.1% 증가
 -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윤활유(54.4%), 항공유(31.9%), 아스팔트(14.8%), 나프타(18.5%), 휘발유(9.7%), 경유(0.5%), LPG(-4.4%), 병커C유(-13.2%)
 - 수출물량은 휘발유 및 윤활유의 수출 호조로 전년동월비 0.43% 증가
 - * 품목별 증가율(물량 기준): 윤활유(69.2%), 휘발유(67.3%), 나프타(27.4%), 경유(-8.3%), 항공유(-16.1%), 아스팔트(-16.9%), LPG(-67.2%), 병커C유(-72.3%)
- 10월 수출액은 단가 상승 및 물량 증가로 전년동월비 138.1% 증가
 - 국제유가의 80달러대 진입으로 수출단가가 전년동월비 약 2배 정도 상승하며 증가폭이 크게 확대
 - *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달러/배럴, 증가율): (2020년 10월) 40.7 → (2021년 10월) 81.6(100.7%)
 - * 석유제품 수출단가(달러/배럴, 상승률): (2020년 10월) 45.5 → (2021년 9월) 90.5(98.9%)
 - * 석유제품 수출액(억 달러, 증가율): (2020년 10월) 16.5 → (2021년 10월) 39.2(138.1%)
 - 수출물량도 글로벌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수요회복으로 전년동월비 28% 확대
 - 지역별로는 주요 대상국인 미국, 일본 및 아세안 국가로의 증가 추세가 지속된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석유제품 수입 소비세 부과 영향으로 5개월 연속 감소
 - * 지역별 수출증가율(%): 중동(716.8), 아세안(325.8), 일본(166.2), 미국(139.9), 중국(-21.1)

정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5	-6.3	-8.6	5.7	3.7	1.1	5.7	4.3	-
	생산(전기비)	-	-	-1.4	6.2	-0.8	0.6	3.6	-2.2	-
	출하	-1.4	-7.3	-11.9	1.1	-0.1	-1.8	0.2	1.5	-
	재고	-10.5	-8.6	-17.7	-9.9	5.2	-11.5	2.2	5.2	-
	가동률	-2.3	-6.2	-8.7	5.6	3.8	1.1	5.6	4.8	-
	내수판매동향	-0.3	-5.8	0.3	5.0	9.6	8.8	8.8	11.1	-
교역 동향	수출	-12.2	-40.6	-16.6	112.6	69.8	75.8	54.5	79.2	138.1
	수입	-18.2	-26.1	-19.0	151.6	129.4	137.1	136.6	116.2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수출입 통계는 '석유제품(MTI 133)' 당월.

(7) 석유화학

□ 국제유가 상승 및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회복으로 수출 호조세 지속

- 9월 석유화학제품 생산은 전년동월비 1.7% 증가하였으나 출하량은 4.3% 감소
 - 9월 국제유가는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 대비 더딘 공급 증가로 지속적으로 상승
 - 에틸렌 가격은 중국 전력 사용 제한에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료 가격 상승으로 통상 손익분기점 수준을 유지
 - 국내 생산설비의 가동률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연휴 및 재고 증가로 인하여 상승폭을 제한
 - 화학제품 비수기에 수요자들이 구매 관망세를 이어가며 석유화학제품 재고 수준이 증가
- 10월 수출액은 경기 회복에 따른 전방산업 수요 증가, 국제유가 상승 등의 호조세로 인하여 전년동월비 68.5% 증가
 - 10월 국제유가는 배럴당 81.6달러로 전년동월비 100% 인상됐고,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도 42.3% 증가

석유화학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3	-3.0	2.8	15.7	7.5	11.6	9.4	1.7	-
	생산(전기비)	-	-	3.6	1.9	-0.9	-0.3	-1.1	-0.7	-
	출하	1.1	-2.9	2.8	10.6	1.8	4.6	5.5	-4.3	-
	재고	-0.4	-6.2	-11.2	3.2	25.1	10.0	13.9	25.1	-
	가동률	-4.4	-1.8	0.4	9.3	4.3	5.7	7.4	0.0	-
교역 동향	수출	-14.8	-16.4	26.6	81.0	63.9	60.2	81.5	52.0	68.5
	수입	-12.8	-15.1	18.4	71.7	44.1	44.1	55.2	33.9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통계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 통계는 '석유화학제품'(MTI 21) 당월.

- EU,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수출국의 전방산업(자동차, 디스플레이, 가전 등) 경기 호조세로 인하여 수출액 증가세 뚜렷
 -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전방산업이 국경질, 광군제로 인한 연말 내수소비 증가로 합성수지 및 기초유분의 수입수요 증가
 - 인도는 플라스틱 원료 등의 수요가 증가하였지만, 현지 공급 여력이 제한적이라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
- ※ 주요 수출국(전년동월비 증가율): EU(114.5%), 중국(76.4%), 아세안(43.0%)

(8) 섬유

□ 수출 증가, 반면 생산 다소 주춤

- 9월 생산은 기저효과와 긴 추석 연휴로 지난 7~8월에 비해 다소 주춤하여 전년동월비 0.4% 감소
- 수출 증가와 전방산업 경기 개선 효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화학섬유와 염색 가공 분야는 6.7% 증가

섬유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6.6	-14.8	-5.7	21.5	8.7	17.3	10.5	-0.4	-
	생산(전기비)	-	-	-4.6	19.4	9.7	17.4	7.5	4.7	-
	출하	-4.9	-11.9	-1.1	15.1	3.5	6.5	6.5	-1.7	-
	재고	-0.4	-4.7	-12.6	-3.9	-1.4	1.4	-0.4	-1.4	-
	가동률	-2.5	-12.4	-4.0	34.7	12.0	20.1	17.6	-0.6	-
교역 동향	수출	-8.0	-13.3	-8.3	46.0	9.9	15.0	15.5	13.0	22.1
	수입	-0.2	-5.3	9.0	16.5	3.6	10.3	9.7	9.0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2) 섬유산업은 섬유, 의복, 화학섬유 기준임.

- 의류의 경우 봉제의류가 6.8%, 편조의류가 12.9% 증가
- 기타 섬유제품은 전년의 높은 생산에 따른 기저효과가 지속되어 20% 감소
- 국내 의류소매 판매액은 전년동월비 26.6% 증가
 - * 의류소매 판매액 증가율(전년동월비): (7월) 12.3% → (8월) 15.4% → (9월) 26.6%
- 10월 수출은 최대 수출 시장인 동남아 지역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되고 글로벌 섬유 수요가 회복되면서, 전년동월비 22.1% 증가
 - 베트남 등 생산기지의 생산 활동 증가와 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판매 실적이 개선된 것도 수출 증가의 주요인
 - * 섬유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 (2020년 10월) 9.4(-15.9) → (2021년 10월) 11.4(22.1)
 - * 10월 1~25일 수출액/증가율(억 달러, %): (아세안) 3.1(32.5), (중국) 1.3(29.6), (미국) 1.2(35.6)

(9) 가전

□ 해외 수요 증가로 수출은 1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

- 9월 생산은 내수 둔화 및 수출 감소로 전년동월비 10.7% 감소, 전월비로는 3.1% 증가
 - 재고는 판매 부진에 따른 생산 감소로 소폭 감소했으나, 생활가전 재고는 연말 성수기를 대비한 생산 증가로 전년동월비 높은 수준을 유지
 - 가동률은 생활가전 분야의 하락으로 전년동월비 10.3% 하락
- 10월 수출은 미국 수요 회복으로 전년동월비 13.9% 증가
 - 글로벌 경기 호조 지속으로 미국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중국, 유럽 등 여러 수출 지역의 수요도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수출은 1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
 - * 대미국 수출 증가율(전년동월비): (9월) 4.7% → (10월) 44.8%(잠정치)
 - * 대중국 수출 증가율(전년동월비): (9월) -25.6% → (10월) 5.6%(잠정치)
- 9월 수입은 인도네시아, 멕시코로부터 TV 수입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13.2% 증가

가전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6월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5.3	3.1	8.5	5.8	-3.0	-1.8	-2.8	-10.7	-
	생산(전기비)	-	-	4.3	-3.8	-0.1	7.2	-9.1	3.1	-
	출하	-4.3	1.4	3.8	2.1	-2.2	-0.7	-6.6	-13.0	-
	재고	-12.5	11.1	16.1	23.3	5.1	-3.6	5.5	-0.6	-
	가동률	-1.1	2.4	3.7	2.0	-7.0	-5.0	-4.0	-10.3	-
교역 동향	수출	-3.6	0.5	15.8	66.5	47.5	29.7	12.3	-4.1	13.9
	수입	-0.1	6.3	39.3	24.2	13.9	7.8	17.9	13.2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2) 가전산업의 범위는 영상음향기기, 가정용기기(생활가전), 조명기기.

- 최대 수입대상국인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은 다소 부진했으나, 선진국(일본, 독일, 미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
-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으로 베트남 공장 가동이 위축되면서 멕시코에서 대체 생산이 이루어져 멕시코산 중저가 TV 역수입이 대폭 증가
- * 9월 수입증가율(전년동월비): 인도네시아 713%, 멕시코 300%, 베트남 -2.3%

(10) 무선통신기기

□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 생산 증가세 지속

- 9월 생산은 폴더블폰 출하가 급증한 8월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며 전년동월비 13.6% 증가, 연간 견조한 증가세를 시현
- 수출 증가세 지속에 따라 출하 역시 전년동월비 7.0% 증가하고 가동률도 27.2% 상승
- 9월 국내 휴대폰 시장은 국내외 신제품으로의 교체수요가 급증한 8월 이후 신규 가입 수요 감소로 소폭 감소

무선통신기기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2.8	-11.3	28.7	41.7	19.3	16.0	28.6	13.6	-
	생산(전기비)	-	-	7.5	0.1	-6.1	-5.7	16.1	-4.1	-
	출하	-7.7	-14.4	43.4	36.0	14.3	25.6	13.9	7.0	-
	재고	0.7	15.2	4.1	-7.5	-7.9	-23.3	-20.0	-7.9	-
	가동률	-3.6	-8.5	29.1	24.1	23.9	29.7	15.3	27.2	-
교역 동향	수출	-17.6	-6.4	21.6	38.5	25.8	5.0	62.1	19.9	15.5
	수입	9.6	-4.9	20.2	0.6	9.0	-6.4	29.9	8.6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1)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교역동향은 무선통신기기(MTI) 기준.

*9월 국내 휴대폰 시장(가입자 회선 수 기준)은 신규가입이 전년동월비 3.5% 감소,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은 각각 1.5%, 0.2% 미증에 그쳐 전체적으로 0.9% 감소

-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5.5% 증가하여 12개월 연속 증가
 - 폴더블폰의 세계적 관심과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제조 경쟁사로의 부품 수출 및 대중국, 대유럽 수출이 크게 증가
 - * 10월 휴대폰 수출은 전년동월비 9.0% 증가하고 휴대폰부품 수출은 21.2% 증가
 - 폴더블폰 판매 호조, 부품 수출의 증가세가 이어져 10월 대중국, 대유럽 수출은 전년동월비 각각 58.8%, 47.5% 증가
- 9월 수입은 해외 기업 신규 모델이 대폭 증가하고 무선교환기 및 중계기 증가로 인하여 전년동월비 8.6% 증가
 - 품목별로 휴대폰(80.2%), 무선교환기 및 중계기(12.4%) 등이 증가한 반면, 휴대폰부품(-7.2%), 방송용 통신기기(-14.5%)는 감소

(11) 반도체

□ 반도체 수출 증가세 지속, 10월까지 누적 수출 1천 억 달러 돌파

-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28.8% 증가한 111.7억 달러, 월 실적으로는 초호황기였던 2018년 10월의 115.8억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
 - 지난해 7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 중이며, 특히, 6개월 연속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
 -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수출 증가율이 각각 24.5%, 34.4%, 39.6%, 43.0%, 28.2%, 28.8%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세 지속
- 9월 반도체 생산과 출하는 수요 증가로 전년동월비 각각 30.6% 및 21.0% 증가하여 매출 호조세 지속
 -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불안정하지만, 글로벌 수요가 지속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과 출하도 증가

반도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11.7	23.9	21.9	27.2	33.9	34.7	36.8	30.6	-
	생산(전기비)	-	-	16.9	-0.5	11.3	1.7	3.4	-1.6	-
	출하	12.0	28.9	36.7	40.8	33.4	45.6	38.0	21.0	-
	재고	-9.6	9.0	4.3	-25.6	-2.7	-22.5	-15.6	-2.7	-
	가동률	-3.0	3.7	4.5	7.1	9.1	11.7	10.0	5.8	-
교역 동향	수출	-25.9	5.6	14.0	29.7	36.4	39.6	43.0	28.2	28.8
	수입	5.2	6.9	13.0	25.1	20.6	18.8	21.0	21.9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한국무역협회, KITA.net.

주: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 9월 재고는 전년동월비 2.7% 감소로 지난 4월 이후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지만, 하반기부터 재고 감소세가 축소되어 재고가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수요산업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 지속
 -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하여 주요 자동차 기업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나, 차량용 반도체는 우리 기업의 비주력품목으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애플이 신제품 생산 계획을 수정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주요 수요산업이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나,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며 애초 계획이 지난해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해보다 수요는 증가

(12) 디스플레이

□ 코로나19 수요 확대에 의한 기저효과로 수출 증가율 축소

- 9월 생산은 신제품 발매 시기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불안정성 확대에 감소세 지속
 - 생산은 전년동월비 9.6% 감소하였으며, 출하량, 재고, 가동률 모두 감소로 전반적인 생산활동 위축

디스플레이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생산 동향	생산(동기비)	-9.3	-6.3	-4.6	1.7	-5.4	-1.8	-4.4	-9.6	-
	생산(전기비)	-	-	-7.1	-4.0	2.0	-1.9	-0.1	-0.9	-
	출하	-11.8	-8.8	-8.6	-4.2	-9.4	-6.2	-7.9	-13.5	-
	재고	-35.0	-9.2	-20.7	-17.1	-9.7	-9.8	-25.8	-9.7	-
	가동률	-6.1	-1.6	-4.7	3.2	-4.0	-1.2	-2.2	-7.7	-
교역 동향	수출	-17.0	-12.3	17.8	17.8	28.2	38.0	23.7	17.3	5.3
	수입	-9.6	-29.6	-32.7	-32.7	-32.8	-8.2	-0.6	9.6	-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동향".

주: 1) 8월 및 9월 생산동향은 잠정치, 10월 수출은 추정치.

2) 생산동향은 '전자부품 제조업' 값을 이용.

- 신제품 발매 시기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산업 생산 축소
- 10월 수출은 OLED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5.3% 증가하여 7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작년 수요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 축소
 - LCD 수출은 생산 축소로 인하여 2.2% 감소하여 5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크게 축소
 -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의 수요 증가로 8.7% 증가, 작년 9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작년 수출 증대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한자리로 축소
 - * OLED 출하량(백만 대): 모바일: (2020년 10월) 45.1 → (2021년 10월 추정) 51.0
TV: (2020년 10월) 0.5 → (2021년 10월 추정) 1.0
 - OLED 수출 비중이 지속 상승하여 70%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점차 확대 전망
 - * 총수출에서의 OLED 비중(%): (2019년) 50.0 → (2020년) 60.6 → (2021년 9월) 75.0
 - 대아세안과 대중국 수출이 모두 증가 지속
 - * 주요 지역 수출 증가율(%): 아세안 10.1, 중국 6.1
- QD-OLED 출하가 예정되어 있어 생산 및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 기대

- 삼성의 대형 OLED 패널인 QD-OLED의 출하가 올해 말에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패널을 탑재한 TV가 내년 초 발매 예정으로 생산 및 수출의 긍정적인 효과 전망

02 서비스산업

(1) 생산

□ 9월 생산, 전년동월비 3.3% 증가

- 9월 생산은 도·소매업의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숙박·음식업, 운수·창고, 정보통신, 예술·스포츠·여가 등 다수 업종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월비 3.3% 증가(전월비 1.3% 증가)
- 지식서비스산업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의 실적 둔화로 전년동월비 3.6% 증가
 - 2021년 4월 전년동월비 6.8% 증가 이후 증가폭 감소세 지속
- 서비스산업 중 생산·고용 모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은 소매업(7.2%)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13.3%), 도매업(-2.7%)의 실적 악화로 전년동월비 0.2% 증가
- 운수·창고업은 항공운송업(26.6%),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18.1%)의 실적 호조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7.5% 증가
 - 2021년 6월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항공여객운송업이 전년동월비 30.1% 증가하며 항공운송업의 증가세 주도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업 다음으로 고용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점업은 숙박업(24.3%), 음식점업(9.6%), 주점업(9.3%)으로 모든 업종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월비 11.2% 증가
- 정보통신업은 정보서비스업(16.2%), 방송업(11.1%), 출판업(5.2%) 등 대부분 업종의 실적 호조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5.6% 증가

서비스산업 업종별 생산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4/4	2/4	3/4*	7월	8월*	9월*
서비스 총지수	106.9	108.4	106.2	110.5	110.8	110.0	111.0	111.0	110.4
상승률	2.3	1.4	-2.0	-2.0	5.7	3.9	4.0	4.2	3.3
전기비	-	-	-	0.9	1.7	0.9	0.1	-0.8	1.3
도·소매	1.5	-0.4	-2.6	-1.8	5.2	3.6	5.5	5.3	0.2
운수·창고	2.1	0.0	-14.2	-13.1	11.0	7.0	6.3	7.4	7.5
숙박·음식점	-1.9	-1.0	-18.5	-24.6	1.5	-1.5	-8.0	-5.3	11.2
정보통신	1.4	3.5	1.4	0.0	3.9	6.9	7.3	7.7	5.6
금융·보험	5.8	1.7	14.0	18.7	9.7	6.3	7.9	6.4	4.5
부동산	0.2	0.4	5.5	0.5	5.7	0.4	-3.9	4.1	1.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8	1.4	0.1	0.3	4.2	0.2	-2.1	2.7	0.2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0.6	2.3	-9.9	-11.7	5.6	3.0	4.3	2.3	2.4
교육	0.1	-0.5	-4.7	-3.9	3.0	1.6	2.3	0.8	1.6
보건·사회복지	5.6	8.1	1.4	-0.4	3.1	4.5	4.9	4.5	4.3
예술·스포츠·여가	-0.6	1.2	-32.6	-33.3	20.6	7.6	1.6	6.4	15.5
협회·수리·개인서비스	0.7	-1.5	-8.2	-10.4	0.3	-0.6	1.6	-2.6	-0.6
수도·하수·폐기물처리	3.0	-0.4	3.3	2.3	6.1	3.4	9.8	5.8	-5.1
지식서비스	3.2	3.1	3.9	4.7	5.5	4.5	5.0	4.8	3.6

자료: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 해당 업종.

2) 전년동기비는 불변지수, 전기비는 계절지수 기준.

- 방송업은 전년동월비가 2021년 1월까지 감소 또는 1% 내외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21년 2월(5.9%) 이후 7월(10.8%), 8월(16.5%) 등 큰 폭의 증가세 유지
- 정보서비스업도 2020년 11월부터 두 자릿수의 전년동월비 증가율을 보이며 정보통신업 상승을 주도

- 서비스산업 중 도·소매업 다음으로 생산 비중이 높은 금융·보험업은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12.5%)의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업(11.1%), 보험업(4.5%)의 실적 호조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4.5% 증가
- 부동산업은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5.7%)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업(-2.5%),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3.5%)의 실적 악화로 인해 전년동월비 1.3% 증가
- 전문·과학·기술서비스는 연구개발업(5.3%), 전문서비스업(2.0%)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8%)의 실적 악화로 인해 전년동월비 0.2% 증가
-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업은 임대업(부동산 제외)(7.8%), 사업시설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1.9%), 사업지원서비스업(1.2%) 모든 업종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동월비 2.4% 소폭 증가
- 교육서비스업은 학원(25.5%)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생산 비중이 높은 초등교육기관(1.0%), 중등교육기관(-1.3%), 고등교육기관(-9.1%)의 실적 감소 및 둔화로 전년동월비 1.6% 증가
 - * 교육서비스업은 2020년 3월부터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2021년 3월 증가세 전환 이후 소폭의 증가세 유지
- 보건·사회복지업은 의원(6.0%), 병원(4.7%), 거주복지시설 운영업(3.7%), 비거주복지시설 운영업(1.9%) 등 모든 업종의 실적 호조 지속으로 전년동월비 4.3% 증가
- 예술·스포츠·여가는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22.4%),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13.0%), 스포츠서비스업(13.8%),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5.8%) 등 대부분 업종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월비 15.5% 증가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가 2020년 4월~2021년 1월까지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1년 3월(8.3%)부터 다시 큰 폭의 증가세 유지
- 협회·수리·개인서비스는 기타 개인서비스업(4.6%), 협회 및 단체(2.9%)는 증가하였으나,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5.3%)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비 -0.6% 감소

-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7.1%),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6.3%)의 실적 악화로 전년동월비 5.1% 감소

(2) 고용

□ 9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59만 8천 명(3.2%) 증가

- 9월 취업자 수는 도·소매, 협회·수리·개인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의 고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복지, 운수·창고, 정보통신, 교육 등 대부분 업종의 고용 증가로 전년동월비 59만 8천 명(3.2%) 증가
- 보건·사회복지는 전년동월비 28만 9천 명(12.0%) 증가, 전체 서비스업종 취업자 수 증가의 48.3%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2021년 1월 이후 전년동월비 증가폭은 확대되고 있으나, 2021년 2월에 전월비 24.5만 명 대폭 증가 이후 증가폭은 감소 추세이며, 9월에는 전월비 3.1만 명 증가
- 운수·창고(14.7만 명, 10.0%), 정보통신(10.4만 명, 12.6%), 교육(9.5만 명, 5.4%), 전문·과학·기술서비스(5.5만 명, 4.7%)도 전년동월비 크게 증가
- 숙박·음식점업은 전년동월비 3만 명(1.4%) 증가
 - 숙박·음식점업은 2021년 1월 전년동월비 15.7% 큰 폭의 감소 이후 4월부터 다시 소폭의 증가 추세
- 반면, 도·소매업은 전년동월비 11만 9천 명(-3.5%) 감소해 전체 서비스업종 중 가장 크게 감소(전월비 1.6만 명, -0.5% 감소)
- 예술·스포츠·여가(1.9만 명, -3.9%), 협회·수리·개인서비스(4.1만 명, -3.5%)도 감소
 - * 협회·수리·개인서비스는 2021년 1월(-8.5%)에 2015년 1월 이후 전년동월비 최대폭 감소 이후 감소세는 지속적으로 완화
- 지식서비스산업은 전년동월비 56만 명(8.1%) 증가(전월비로는 8만 명 증가)
 - 2021년 3월 전년동월비 증가세 전환 이후 최대폭 증가

서비스산업 업종별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4/4	2/4	3/4	7월	8월	9월
총취업자 수	18,796	19,111	18,866	18,864	19,270	19,449	19,442	19,414	19,494
증감률	0.4	1.7	-1.3	-2.2	2.6	2.8	2.5	2.5	3.2
전기비	-	-	-	-0.3	4.1	0.9	0.2	-0.1	0.4
도·소매	-1.9	-1.6	-4.4	-5.1	-4.5	-4.0	-5.2	-3.3	-3.5
운수·창고	0.1	1.8	3.6	1.8	6.5	8.9	8.2	7.3	10.0
숙박·음식점	-2.0	2.7	-6.9	-10.1	1.2	-0.1	-0.6	-1.8	1.4
정보통신	7.0	2.8	-1.6	-2.1	4.9	8.7	5.4	8.8	12.6
금융·보험	5.8	-4.7	-2.7	-3.1	4.1	2.7	4.6	2.9	2.2
부동산	-2.2	5.3	-7.0	-12.4	2.7	6.5	4.7	6.9	7.3
전문·과학·기술서비스	0.4	5.5	0.6	-0.2	6.1	5.0	4.9	4.8	4.7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4.6	0.1	2.7	4.3	5.6	4.6	6.5	3.5	1.6
공공행정·국방	4.9	-3.0	3.3	11.2	7.6	4.0	8.3	4.1	-3.1
교육	-3.2	2.0	-4.6	-5.5	2.4	3.2	1.5	2.9	5.4
보건·사회복지	6.5	7.8	5.9	3.9	9.6	10.5	9.9	10.0	12.0
예술·스포츠·여가	3.8	11.3	0.3	-10.1	-6.2	-6.9	-5.5	-8.3	-3.9
협회·수리·개인서비스	1.2	-0.3	-3.5	-3.5	-3.6	-3.7	-4.2	-3.4	-3.5
수도·하수·폐기물처리	10.3	6.6	12.9	12.9	11.9	13.0	13.6	12.3	12.2
지식서비스	2.6	3.6	0.2	-0.9	5.9	6.6	5.7	6.4	8.1

자료: 통계청.

주: 음영 표시는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는 업종.

-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 서비스산업은 전년동월비 63만 6천 명 증가(전월비로는 7.9만 명 증가)
 - 전년동월비 민간부문 취업자 수 증감(만 명): (2021년 3월) 16.2 → (4월) 42.8 → (5월) 40.4 → (6월) 37.9 → (7월) 38.0 → (8월) 42.0 → (9월) 63.6
 - 전월비 민간부문 취업자 수 증감(만 명): (2021년 3월) 28.7 → (4월) 18.3 → (5월) 20.4 → (6월) 7.5 → (7월) 4.2 → (8월) -2.5 → (9월) 7.9

(3) 서비스수지

□ 9월 서비스수지 2천 3백만 달러 적자

- 9월 서비스수지는 지식재산권 사용료의 적자 전환, 기타사업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로 전월 9억 9천 8백만 달러 흑자에서 2천 3백만 달러 적자로 전환(전월비 10억 2천 1백만 달러 감소)
- 운송수지는 해상운송수지의 흑자 대폭 확대로 전월비 5억 4천 4백만 달러 증가한 20억 6천만 달러 흑자
 - 해상운송수지는 16억 2천 8백만 달러 흑자로 전월비 4억 7천 5백만 달러 증가하여 전체 운송수지 흑자 증가 주도
-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월 2억 8천 3백만 달러 흑자에서 5억 7천 7백만 달러 적자로 전환(전월비 8억 6천만 달러 감소)
 - R&D로 창출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입, 컴퓨터소프트웨어 복제 및 배포권 사용료 수입이 각각 전월비 7억 1천만 달러, 8천 9백만 달러 감소하며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의 적자 전환 주도
- 기타사업서비스수지는 연구개발서비스수지, 전문·경영컨설팅서비스수지, 기술·무역·기타사업서비스수지의 적자 확대로 인해 전월비 6억 달러 이상 증가한 10억 9천 1백만 달러 적자
 - 연구개발서비스수지, 전문·경영컨설팅서비스수지, 기술·무역·기타사업서비스수지는 각각 전월비 1억 1천 5백만 달러, 3천 9백만 달러, 4억 6천 3백만 달러 적자 증가
- 금융서비스수지는 전월비 2천만 달러 증가한 1억 4천 9백만 달러 흑자
 - 명시적수수료 및 기타금융서비스 수입이 전월비 1천 5백만 달러 감소하고, 금융중개서비스 지급이 3천 1백만 달러 증가하며 흑자 규모 소폭 증가
-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는 전체 흑자 규모가 전월 2억 9천 9백만 달러에서 2억 7천 2백만 달러로 2천 7백만 달러 감소

서비스산업 업종별 수지 동향

단위: 백만 달러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연간	4/4	2/4	3/4	7월	8월	9월
서비스수지	-29,369	-26,845	-16,190	-2,342	-1,498	892	-82	998	-23
가공서비스	-7,325	-7,611	-5,685	-1,494	-1,425	-1,468	-517	-495	-456
유지보수	-323	-348	-913	-230	-208	-194	-34	-37	-122
운송	-2,508	-1,734	2,132	1,506	3,290	5,170	1,593	1,516	2,060
여행	-16,566	-11,872	-5,630	-1,428	-1,805	-1,567	-493	-607	-467
건설	9,719	6,776	4,770	1,445	887	774	213	347	214
보험	107	-256	-336	86	-84	-86	-37	-33	-17
금융	817	921	1,757	555	442	382	104	129	149
지식재산권 사용료	-2,063	-2,157	-3,034	-645	-984	-676	-382	283	-577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1,557	2,461	1,604	514	1,142	1,102	531	299	272
기타 사업서비스	-12,215	-12,391	-10,410	-2,576	-2,795	-2,660	-1,094	-474	-1,091
개인·문화·여가	227	271	184	93	155	240	61	78	101
정부	-797	-905	-629	-169	-115	-124	-27	-8	-89

자료: 한국은행.

주: BPM6 이행에 따른 국제수지표 체계 변경 내용을 따름.

- 정보서비스수지 흑자가 전월비 9천 2백만 달러 증가하였으나, 컴퓨터서비스수지 흑자가 전월비 1억 1천 5백만 달러 감소하며 전체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수지 흑자 감소 주도
- 여행수지는 유학연수지급, 일반여행지급이 모두 감소하여 4억 6천 7백만 달러 적자(전월비 1억 4천 1백 달러 증가)
 - 유학연수지급, 일반여행지급은 각각 전월비 1억 3천 6백만 달러, 1억 6천 9백만 달러 감소하며 전체 여행수지 적자 감소 주도
- 건설수지는 전월 3억 4천 7백만 달러에서 2억 1천 4백만 달러로 흑자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가공서비스는 적자 규모가 전월 4억 9천 5백만 달러에서 4억 5천 6백만 달러로 소폭 감소

IV

지역별 동향

01 개관

(1) 생산

- 9월 전국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1.8% 감소
 - 광주(-14.8%), 강원(-14.1%), 울산(-11.6%) 등에서 상대적으로 생산이 감소하였으며, 세종(11.5%), 전남(6.9%) 등은 증가

지역 생산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전국		0.4	-0.4	0.0	4.4	12.7	5.0	11.5	7.8	9.7	-1.8
수도권	서울	-6.4	-15.3	-10.1	0.9	11.4	8.4	14.3	10.6	12.3	2.9
	인천	-5.3	-1.0	-1.4	3.4	16.0	4.5	16.1	11.9	8.3	-5.6
	경기	3.6	8.6	1.0	11.0	19.0	12.4	16.4	15.3	18.4	4.2
충청권	대전	10.1	-6.9	-4.0	3.8	12.7	-9.9	6.8	-9.1	-14.7	-6.2
	세종	2.1	7.1	10.2	8.8	14.8	13.0	14.6	11.6	16.2	11.5
	충북	1.8	-5.2	2.2	7.6	19.3	10.5	22.2	14.3	17.7	0.7
	충남	-4.4	-2.4	0.1	-0.2	6.9	-0.4	4.3	5.2	0.4	-6.6

(계속)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호남권	광주	-0.9	-0.2	7.6	7.9	25.5	-8.7	11.8	-9.8	0.1	-14.8
	전북	-6.1	-5.7	-4.7	2.6	12.3	4.0	16.3	8.8	12.2	-7.2
	전남	2.1	-0.8	-3.7	2.9	9.1	8.3	7.8	7.2	11.1	6.9
대경권	대구	0.0	-11.5	-6.3	1.1	28.4	6.8	28.8	15.3	13.9	-7.0
	경북	-2.0	-5.9	-4.1	4.3	10.0	-2.1	8.2	5.4	-5.4	-6.0
동남권	부산	-1.8	-6.6	-9.6	-7.4	2.2	1.1	0.7	0.8	3.2	-0.4
	울산	1.3	-6.4	-3.6	4.6	9.4	-2.2	8.7	0.1	6.4	-11.6
	경남	1.6	-7.1	-5.8	-4.2	8.7	0.6	7.7	2.5	8.9	-8.3
강원권		0.6	-5.3	-5.1	-3.6	3.2	-1.4	2.9	2.5	9.1	-14.1
제주권		-2.6	-6.1	-1.6	3.7	10.2	4.8	9.5	13.7	5.9	-5.3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는 잠정치.

(2) 고용

- 9월 전국 취업자 수는 2,768만 명으로 전년동월비 2.5% 증가
 - 경기(5.3%), 강원(3.1%), 전남(2.9%) 등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제주(-0.5%), 울산(-0.4%), 광주(-0.3%)는 감소

지역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전국		27,123 (1.1)	26,904 (-0.8)	26,952 (-1.6)	26,369 (-1.4)	27,467 (2.3)	27,645 (2.1)	27,637 (2.2)	27,648 (2.0)	27,603 (1.9)	27,683 (2.5)
수도권	서울	5,086 (0.1)	5,051 (-0.7)	5,054 (-1.5)	4,960 (-2.2)	5,081 (1.2)	5,077 (0.4)	5,098 (1.0)	5,087 (0.2)	5,053 (-0.6)	5,089 (1.4)
	인천	1,581 (0.4)	1,560 (-1.3)	1,556 (-2.0)	1,531 (-1.4)	1,575 (0.9)	1,575 (0.3)	1,578 (0.8)	1,566 (-0.3)	1,578 (0.1)	1,581 (1.2)
	경기	6,952 (2.4)	6,909 (-0.6)	6,906 (-1.9)	6,850 (-0.9)	7,154 (3.5)	7,255 (5.1)	7,220 (4.1)	7,261 (4.9)	7,238 (5.1)	7,266 (5.3)

(계속)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충청권	대전	772 (1.7)	780 (1.0)	788 (0.4)	759 (-2.2)	787 (1.8)	797 (1.7)	799 (2.6)	794 (1.8)	801 (1.8)	797 (1.5)
	세종	168 (13.5)	180 (7.1)	182 (5.2)	180 (4.7)	188 (4.4)	189 (2.2)	189 (3.3)	188 (2.2)	188 (1.6)	190 (2.2)
	충북	880 (0.5)	890 (1.1)	887 (0.2)	859 (-1.3)	907 (0.6)	910 (1.0)	912 (0.1)	906 (-0.3)	914 (1.9)	911 (1.4)
	충남	1,196 (1.4)	1,176 (-1.7)	1,182 (-1.7)	1,115 (-1.1)	1,217 (2.3)	1,231 (2.0)	1,224 (1.6)	1,230 (1.7)	1,228 (1.8)	1,234 (2.4)
호남권	광주	750 (0.1)	748 (-0.3)	748 (-1.4)	736 (-1.5)	752 (0.8)	751 (0.3)	750 (-0.7)	754 (0.7)	751 (0.5)	749 (-0.3)
	전북	928 (1.4)	932 (0.4)	947 (1.4)	923 (1.9)	962 (3.6)	970 (2.4)	977 (3.5)	971 (2.6)	969 (2.8)	970 (2.0)
	전남	974 (1.4)	974 (0.0)	975 (-1.4)	947 (-1.5)	995 (1.8)	1,001 (1.9)	1,002 (1.1)	992 (0.9)	1,000 (1.8)	1,010 (2.9)
대경권	대구	1,219 (-0.6)	1,184 (-2.9)	1,206 (-1.0)	1,184 (1.3)	1,229 (5.7)	1,231 (2.6)	1,235 (4.0)	1,235 (3.5)	1,227 (2.1)	1,232 (2.2)
	경북	1,430 (0.2)	1,418 (-0.8)	1,422 (-1.9)	1,357 (-2.9)	1,417 (0.3)	1,439 (-0.1)	1,421 (-0.2)	1,438 (-0.5)	1,432 (-0.6)	1,447 (0.6)
동남권	부산	1,676 (1.1)	1,640 (-2.1)	1,649 (-2.7)	1,618 (-2.0)	1,670 (3.4)	1,682 (2.4)	1,680 (2.8)	1,685 (2.8)	1,691 (2.8)	1,669 (1.5)
	울산	571 (-0.5)	560 (-1.9)	559 (-3.1)	549 (-2.7)	552 (-0.5)	558 (-0.9)	550 (-1.3)	554 (-1.4)	558 (-0.5)	563 (-0.4)
	경남	1,749 (0.2)	1,729 (-1.1)	1,722 (-2.3)	1,682 (-2.8)	1,762 (2.0)	1,759 (1.2)	1,772 (1.7)	1,764 (1.1)	1,753 (0.5)	1,760 (1.8)
강원권		811 (2.8)	795 (-2.0)	786 (-3.2)	744 (-2.6)	832 (2.2)	841 (3.1)	843 (2.7)	844 (3.4)	841 (2.6)	837 (3.1)
제주권		382 (2.7)	378 (-1.0)	383 (-1.5)	375 (-1.3)	388 (4.6)	380 (0.5)	386 (4.6)	380 (1.1)	381 (0.5)	378 (-0.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017년부터 충북, 충남에서 세종이 분리되어 작성됨.

(3) 수출

- 9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6.7% 증가한 558억 달러를 기록
 - 전국 수출은 11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무역통계 집계 이후 월중 최고치를 기록
 - 지역의 경우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제품, 석유제품, 화공품이 크게 증가하며 전남(70.1%)에서 높은 증가율 기록

지역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기비 증가율,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전국		-10.4	-5.5	4.1	12.6	42.1	26.4	39.8	29.6	34.8	16.7
수도권	서울	-11.2	-7.1	5.9	18.7	72.9	22.2	56.4	25.4	30.2	12.9
	인천	-6.8	-0.8	1.1	-1.0	27.7	29.9	37.2	26.6	45.9	20.0
	경기	-18.6	-1.3	6.7	15.6	27.2	17.1	26.3	19.7	24.7	8.5
충청권	대전	-10.3	24.0	28.6	3.3	12.6	-9.4	10.4	-10.9	3.2	-18.3
	세종	4.5	1.2	4.1	13.4	31.1	16.4	19.6	12.8	7.1	29.8
	충북	-5.0	12.6	27.7	24.1	19.2	20.5	31.4	29.9	21.7	11.2
	충남	-13.1	-0.5	10.4	12.9	42.4	39.1	39.7	46.5	42.7	30.3
호남권	광주	-8.5	2.7	17.0	17.7	49.3	-2.0	25.2	6.2	4.0	-14.7
	전북	-16.5	-10.6	2.7	18.1	59.5	33.1	73.3	44.6	50.2	10.9
	전남	-11.0	-16.9	-10.6	22.3	84.3	61.7	61.5	61.8	54.5	70.1
대경권	대구	-7.6	-16.4	-7.8	5.7	65.1	23.6	55.0	30.9	31.5	10.7
	경북	-7.8	-1.6	11.3	14.3	31.9	20.3	23.3	11.5	36.9	14.9
동남권	부산	-3.4	-18.7	-16.2	8.7	59.5	37.8	68.9	36.3	47.6	31.4
	울산	-0.9	-19.3	-13.1	5.4	65.7	31.0	75.2	45.6	42.4	10.6
	경남	-2.2	-8.8	7.6	5.6	20.1	20.0	18.5	17.0	37.3	10.8
강원권		-0.4	-3.1	11.0	34.7	47.5	39.4	25.6	46.6	41.1	31.5
제주권		-18.3	4.0	13.4	16.9	92.7	80.5	101.5	145.2	82.8	41.2

자료: 한국무역협회.

(1) 수도권

- 서울: 생산 증가(2.9%), 고용 증가(1.4%), 수출 증가(12.9%)
 - 주요 업종인 의복 및 모피제품(6.8%),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8.8%) 등 생산이 상승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0%)의 증가로 제조업(-3.3%) 등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고용 증가 전환
 - 주요 수출품인 합성수지(59.0%), 자동차부품(1.5%), 비누치약 및 화장품(2.3%) 등 품목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
- 인천: 생산 감소(-5.6%), 고용 증가(1.2%), 수출 증가(20.0%)
 - 기계 및 장비(13.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6.4%)는 증가세이나, 자동차 및 트레일러(-40.7%) 등 감소폭 확대로 전체 생산 감소 전환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9%)의 증가로, 농림·어업(-50.0%), 제조업(-2.8%)이 감소하였음에도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 중 반도체(101.6%), 비누치약 및 화장품(39.7%), 건설광산기계(21.2%), 자동차부품(13.3%) 등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세
- 경기: 생산 증가(4.2%), 고용 증가(5.3%), 수출 증가(8.5%)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0.1%) 등 생산이 증가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제조업(1.6%),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6.3%)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18.3%), 자동차(15.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1.5%), 반도체 제조용장비(28.9%)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수도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생 산	서울	의복 및 모피제품	-3.0	-21.0	-20.2	-6.3	10.3	8.3	12.0	10.8	7.9	6.8
		전자부품 외	-1.2	-17.0	-5.7	1.1	11.3	23.8	16.9	-0.5	47.6	28.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8.2	-5.8	-9.7	-0.8	15.3	0.9	19.7	-2.8	9.0	-2.5
	인천	기계 및 장비	-10.2	-1.4	11.3	20.1	52.8	20.1	58.5	37.0	11.4	1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1.9	-9.9	-8.5	-2.8	6.4	-26.4	9.1	-20.2	-13.8	-40.7
		전자부품 외	-7.8	2.9	31.5	11.6	74.8	39.1	52.1	23.3	90.4	16.4
	경기	전자부품 외	3.9	19.7	7.6	22.3	22.4	25.5	19.6	27.4	29.5	20.1
		자동차 및 트레일러	2.1	-10.0	0.3	22.4	23.4	-7.6	12.4	-0.3	8.8	-25.6
		기계 및 장비	27.2	14.0	-16.5	-10.4	18.8	-15.2	15.3	-11.3	-5.7	-27.2
고 용	서울	농림·어업	8 (14.3)	7 (-12.5)	8 (0.0)	6 (0.0)	7 (-12.5)	3 (-62.5)	7 (-12.5)	3 (-62.5)	3 (-62.5)	4 (-50.0)
		제조업	449 (-0.2)	447 (-0.4)	443 (-0.4)	449 (0.4)	439 (-0.9)	438 (-3.5)	448 (2.1)	445 (-0.7)	433 (-6.7)	435 (-3.3)
		SOC·서비스	4,630 (0.1)	4,597 (-0.7)	4,604 (-1.5)	4,506 (-2.4)	4,636 (1.4)	4,636 (0.8)	4,643 (0.9)	4,639 (0.4)	4,617 (0.2)	4,651 (2.0)
	인천	농림·어업	15 (150.0)	14 (-6.7)	12 (-29.4)	9 (-25.0)	12 (-20.0)	11 (-31.3)	13 (-13.3)	12 (-14.3)	12 (-25.0)	9 (-50.0)
		제조업	328 (-7.1)	324 (-1.2)	322 (-0.3)	311 (-3.7)	303 (-7.9)	314 (-3.1)	311 (-5.5)	317 (-1.9)	314 (-4.3)	311 (-2.8)
		SOC·서비스	1,238 (1.8)	1,221 (-1.4)	1,221 (-2.2)	1,211 (-0.6)	1,260 (3.5)	1,249 (1.6)	1,253 (2.6)	1,236 (0.2)	1,251 (1.6)	1,260 (2.9)
	경기	농림·어업	118 (5.4)	107 (-9.3)	98 (-16.2)	69 (-21.6)	122 (-2.4)	124 (5.1)	128 (3.2)	127 (5.8)	127 (11.4)	119 (0.0)
		제조업	1,259 (-4.7)	1,283 (1.9)	1,309 (1.8)	1,362 (5.8)	1,355 (7.1)	1,315 (3.5)	1,325 (5.1)	1,335 (6.3)	1,301 (2.6)	1,309 (1.6)
		SOC·서비스	5,575 (4.1)	5,519 (-1.0)	5,500 (-2.5)	5,419 (-2.1)	5,677 (2.8)	5,816 (5.5)	5,767 (3.9)	5,799 (4.5)	5,810 (5.5)	5,838 (6.3)
수 출	서울		57,379 (-11.2)	53,332 (-7.1)	15,303 (5.9)	16,333 (18.7)	17,736 (72.9)	17,127 (22.2)	5,943 (56.4)	5,735 (25.4)	5,544 (30.2)	5,848 (12.9)
	인천		38,018 (-6.8)	37,701 (-0.8)	9,947 (1.1)	10,057 (-1.0)	10,731 (27.7)	11,943 (29.9)	3,842 (37.2)	3,712 (26.6)	4,052 (45.9)	4,179 (20.0)
	경기		116,686 (-18.6)	115,157 (-1.3)	31,098 (6.7)	31,166 (15.6)	34,256 (27.2)	35,316 (17.1)	11,856 (26.3)	12,011 (19.7)	11,386 (24.7)	11,919 (8.5)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생산은 산업생산지수,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2) 충청권

- 대전: 생산 감소(-6.2%), 고용 증가(1.5%), 수출 감소(-18.3%)
 - 주요 업종인 담배 제조업(-3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6.3%) 등의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감소세
 - 제조업(-10.7%)이 감소세이나, 농림·어업(12.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3%)의 증가로 지역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상위 수출품인 반도체(24.1%)를 제외한, 원동기 및 펌프(-35.1%), 자동차부품(-29.2%), 기호식품(-44.3%) 등 감소로 지역 수출 감소 전환
- 세종: 생산 증가(11.5%), 고용 증가(2.2%), 수출 증가(29.8%)
 - 광업·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11.5% 증가하여 증가세 지속
 - 농림·어업(22.2%), 제조업(8.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6%)의 전 부문에서 증가하여 전체 고용 증가세
 - 상위 수출품인 기구부품(53.4%), 합성수지(73.0%), 정밀화학원료(45.7%)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세
- 충북: 생산 증가(0.7%), 고용 증가(1.4%), 수출 증가(11.2%)
 - 지역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57.2%)는 증가세이나, 식료품 제조업(-1.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29.3%) 등이 감소 전환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폭 축소
 - 농림·어업(7.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2%)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31.4%), 컴퓨터(29.3%), 정밀화학원료(54.3%)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 충남: 생산 감소(-6.6%), 고용 증가(2.4%), 수출 증가(30.3%)
 - 주요 업종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6.4%) 증가폭이 축소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7.5%), 자동차 및 트레일러(-27.8%) 등의 감소로 전체 생산 감소
 - 농림·어업(10.8%), 제조업(4.2%)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충청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생 산	대전	담배 제조업	7.4	11.7	27.6	9.6	12.4	-26.0	2.6	-23.5	-22.4	-31.7
		기계 및 장비	18.5	-23.6	-15.3	17.3	25.6	16.7	35.7	10.5	30.8	12.7
		화학제품 외	32.8	-4.7	4.9	14.7	-11.8	-22.2	-20.4	-25.9	-33.8	-6.3
	세종	총지수	2.1	7.1	10.2	8.8	14.8	13.0	14.6	11.6	16.2	11.5
		전자부품 외	3.8	-14.2	-1.9	9.4	31.1	46.9	34.2	37.6	45.4	57.1
		식료품	13.3	5.3	4.7	4.6	6.2	2.3	5.2	2.3	6.1	-1.3
	충북	화학제품 외	1.2	3.3	27.5	30.4	56.7	5.8	72.7	38.6	19.5	-29.3
		전자부품 외	-9.8	-9.5	5.7	-23.1	-10.0	-12.6	-14.7	-7.4	-12.0	-17.5
		자동차 및 트레일러	0.1	-0.4	-7.6	5.8	5.3	-22.3	5.4	-24.8	-12.2	-27.8
		화학제품 외	-3.0	-1.4	-3.5	4.4	12.9	19.5	5.0	18.2	23.7	16.4
고 용	대전	농림·어업	8 (14.3)	8 (0.0)	7 (-30.0)	7 (-22.2)	8 (-11.1)	8 (14.3)	9 (0.0)	8 (14.3)	8 (14.3)	9 (12.5)
		제조업	102 (21.4)	105 (2.9)	100 (-8.3)	94 (-14.5)	93 (-12.3)	91 (-11.7)	89 (-13.6)	90 (-10.9)	92 (-12.4)	92 (-10.7)
		SOC·서비스	661 (-1.0)	667 (0.9)	680 (2.3)	656 (0.0)	685 (4.1)	697 (3.6)	701 (5.1)	695 (3.6)	700 (3.7)	696 (3.3)
	세 종	농림·어업	8 (14.3)	8 (0.0)	7 (0.0)	6 (20.0)	11 (22.2)	11 (22.2)	11 (22.2)	10 (11.1)	11 (22.2)	11 (22.2)
		제조업	24 (0.0)	24 (0.0)	24 (4.3)	25 (4.2)	23 (0.0)	24 (0.0)	23 (-4.2)	23 (-4.2)	24 (0.0)	25 (8.7)
		SOC·서비스	136 (16.2)	148 (8.8)	151 (5.6)	150 (4.9)	155 (4.7)	154 (0.7)	155 (2.6)	155 (2.0)	154 (0.7)	155 (0.6)
	충북	농림·어업	89 (-1.1)	93 (4.5)	88 (-2.2)	79 (-3.7)	101 (0.0)	104 (3.0)	103 (1.0)	101 (-1.9)	103 (4.0)	107 (7.0)
		제조업	190 (4.4)	201 (5.8)	209 (10.0)	216 (11.9)	213 (8.7)	207 (1.0)	213 (8.1)	207 (4.0)	207 (1.0)	208 (-1.0)
		SOC·서비스	601 (0.0)	596 (-0.8)	589 (-2.5)	563 (-5.2)	592 (-2.1)	599 (0.5)	595 (-2.8)	597 (-1.5)	603 (1.7)	596 (1.2)
	충남	농림·어업	143 (2.1)	162 (13.3)	168 (9.1)	126 (3.3)	197 (9.4)	206 (15.1)	203 (9.7)	206 (15.7)	205 (17.8)	206 (10.8)
		제조업	270 (0.0)	250 (-7.4)	252 (-5.6)	255 (-2.3)	259 (4.0)	250 (5.0)	255 (1.2)	252 (5.9)	252 (5.9)	247 (4.2)
		SOC·서비스	783 (1.8)	764 (-2.4)	762 (-2.4)	735 (-1.3)	760 (-0.1)	775 (-1.9)	766 (-0.3)	772 (-2.6)	770 (-3.0)	782 (0.0)
	수 출	대전	4,048 (-10.3)	5,018 (24.0)	1,366 (28.6)	1,280 (3.3)	1,174 (12.6)	1,241 (-9.4)	430 (10.4)	414 (-10.9)	421 (3.2)	406 (-18.3)
		세종	1,285 (4.5)	1,300 (1.2)	372 (4.1)	362 (13.4)	361 (31.1)	388 (16.4)	118 (19.6)	132 (12.8)	117 (7.1)	139 (29.8)
		충북	22,080 (-5.0)	24,870 (12.6)	7,134 (27.7)	7,214 (24.1)	6,709 (19.2)	7,585 (20.5)	2,446 (31.4)	2,608 (29.9)	2,420 (21.7)	2,557 (11.2)
충남		79,951 (-13.1)	79,572 (-0.5)	22,475 (10.4)	22,046 (12.9)	24,715 (42.4)	28,118 (39.1)	8,889 (39.7)	8,701 (46.5)	9,396 (42.7)	10,020 (30.3)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 주력수출품 중 반도체(29.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31.4%), 컴퓨터(58.9%), 석유제품(63.2%)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세

(3) 호남권

- 광주: 생산 감소(-14.8%), 고용 감소(-0.3%), 수출 감소(-14.7%)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32.6%), 전기장비(-12.9%) 생산이 감소하며 지역 전체 생산도 감소 전환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7%)은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20.0%), 제조업(-10.3%) 감소세로 전체 취업자 수 감소
 - 지역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25.0%)는 증가하였으나, 자동차(-45.1%), 냉장고(-20.2%) 등 감소로 전체 수출 감소
- 전북: 생산 감소(-7.2%), 고용 증가(2.0%), 수출 증가(10.9%)
 - 자동차 및 트레일러(-9.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6.2%), 식료품 제조업(-9.8%) 등의 동반 부진으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전환
 - 농림·어업(-7.9%)은 감소하였으나, 제조업(1.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5.1%) 부문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상위 수출품인 동제품(42.9%), 합성수지(40.0%), 농약 및 의약품(121.9%) 등이 증가하여 전체 수출 증가
- 전남: 생산 증가(6.9%), 고용 증가(2.9%), 수출 증가(70.1%)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7.6%), 1차 금속 제조업(5.1%), 석유정제품(19.7%) 등이 동반 상승하며 지역 전체 생산 증가세
 - 농림·어업(7.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5%)의 증가로 제조업(-10.1%)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석유제품(98.1%), 합성수지(35.6%), 철강판(173.4%), 기초유분(167.8%) 등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호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생 산	광 주	자동차 및 트레일러	0.7	0.4	1.2	5.6	27.0	-15.6	21.9	-12.7	4.4	-32.6
		전기장비	1.0	8.7	15.5	27.1	41.7	-2.3	22.2	14.7	-7.0	-12.9
		기계 및 장비	8.0	-11.2	-6.6	-7.1	27.4	-8.8	9.1	-23.4	1.0	5.0
	전 북	자동차 및 트레일러	-8.9	-14.3	-12.8	11.5	6.4	-0.6	12.3	-2.4	14.2	-9.5
		화학제품 외	-11.0	-11.1	-6.9	-3.2	26.6	-4.8	26.9	3.1	-0.1	-16.2
		식료품 제조업	5.6	-0.6	-5.0	-1.7	0.0	-4.2	2.4	-5.0	3.0	-9.8
	전 남	화학제품 외	2.2	-2.8	-11.7	3.3	13.4	10.7	14.8	10.3	14.2	7.6
		1차 금속 제조업	-0.9	-8.1	-3.0	3.7	24.2	6.4	10.6	11.7	3.0	5.1
		석유정제품	-2.9	-3.7	-9.1	0.6	14.6	20.7	19.5	17.9	24.4	19.7
고 용	광 주	농림·어업	13 (30.0)	16 (23.1)	15 (-16.7)	12 (-25.0)	13 (-18.8)	12 (-25.0)	13 (-23.5)	12 (-25.0)	11 (-31.3)	12 (-20.0)
		제조업	110 (-0.9)	107 (-2.7)	105 (-4.5)	103 (-5.5)	100 (-6.5)	96 (-10.3)	99 (-5.7)	98 (-9.3)	93 (-13.1)	96 (-10.3)
		SOC·서비스	626 (-0.2)	625 (-0.2)	628 (-0.5)	620 (-0.2)	639 (2.6)	644 (2.9)	638 (0.6)	644 (2.9)	647 (3.7)	640 (1.7)
	전 북	농림·어업	168 (7.0)	179 (6.5)	176 (2.3)	160 (1.3)	179 (-5.3)	172 (-9.9)	181 (-6.2)	173 (-10.8)	170 (-10.5)	174 (-7.9)
		제조업	123 (0.0)	123 (0.0)	119 (-3.3)	122 (-3.2)	118 (-6.3)	116 (-3.3)	116 (-7.2)	113 (-8.1)	115 (-3.4)	120 (1.7)
		SOC·서비스	635 (0.0)	630 (-0.8)	650 (1.9)	638 (2.7)	664 (8.3)	681 (7.4)	679 (8.8)	683 (8.8)	684 (8.2)	676 (5.1)
	전 남	농림·어업	191 (-2.6)	205 (7.3)	218 (19.8)	205 (14.5)	221 (6.3)	229 (6.5)	224 (4.2)	226 (4.6)	227 (5.6)	232 (7.9)
		제조업	104 (1.0)	106 (1.9)	101 (-3.8)	94 (-10.5)	97 (-10.2)	98 (-12.5)	99 (-9.2)	97 (-14.9)	99 (-12.4)	98 (-10.1)
		SOC·서비스	678 (2.4)	662 (-2.4)	657 (-6.4)	648 (-4.3)	677 (2.4)	674 (3.1)	678 (1.8)	669 (2.5)	673 (2.9)	680 (3.5)
수 출	광주		13,415 (-8.5)	13,772 (2.7)	3,820 (17.0)	3,918 (17.7)	4,066 (49.3)	3,820 (-2.0)	1,338 (25.2)	1,401 (6.2)	1,206 (4.0)	1,213 (-14.7)
	전북		6,537 (-16.5)	5,842 (-10.6)	1,621 (2.7)	1,758 (18.1)	2,002 (59.5)	1,966 (33.1)	704 (73.3)	696 (44.6)	632 (50.2)	637 (10.9)
	전남		32,587 (-11.0)	27,092 (-16.9)	7,092 (-10.6)	8,987 (22.3)	10,127 (84.3)	11,569 (61.7)	3,496 (61.5)	3,986 (61.8)	3,916 (54.5)	3,668 (70.1)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4) 대경권

● 대구: 생산 감소(-7.0%), 고용 증가(2.2%), 수출 증가(10.7%)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14.0%), 금속가공제품(-5.6%) 등 생산이 감소 전환하며
지역 전체 생산 감소 전환

대경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생 산	대구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	-13.8	4.2	12.1	57.5	4.7	55.1	13.8	19.4	-14.0
		금속가공제품	-1.5	-13.4	-16.3	-10.5	28.1	8.1	47.0	17.0	15.0	-5.6
		기계 및 장비	10.2	-16.9	-21.7	0.8	27.1	17.0	28.9	23.5	19.8	6.7
	경북	전자부품 외	-7.2	-11.4	-23.7	14.1	4.2	-9.2	-1.5	6.9	-27.6	-2.9
		1차 금속	-7.8	-2.8	4.2	-1.5	8.3	1.2	15.2	5.8	3.7	-5.7
		자동차 및 트레일러	0.7	-7.0	6.4	12.9	33.8	-0.7	32.7	9.2	11.7	-19.2
고 용	대구	농림·어업	33 (10.0)	31 (-6.1)	27 (-22.9)	21 (-36.4)	16 (-51.5)	11 (-64.5)	17 (-51.4)	13 (-59.4)	10 (-67.7)	11 (-62.1)
		제조업	249 (-1.6)	231 (-7.2)	231 (-8.0)	236 (0.0)	246 (7.4)	241 (6.2)	243 (6.6)	243 (7.0)	241 (6.2)	239 (5.8)
		SOC·서비스	936 (-0.6)	923 (-1.4)	948 (1.7)	927 (3.0)	967 (7.3)	979 (3.9)	975 (5.4)	979 (4.8)	975 (3.4)	983 (3.5)
	경북	농림·어업	251 (6.8)	262 (4.4)	283 (16.0)	248 (13.8)	285 (9.2)	293 (1.7)	294 (8.5)	292 (2.8)	293 (1.4)	293 (0.7)
		제조업	299 (5.3)	292 (-2.3)	277 (-11.8)	278 (-9.2)	277 (-6.7)	281 (-2.1)	273 (-6.5)	279 (-3.5)	280 (-3.1)	284 (0.0)
		SOC·서비스	879 (-3.0)	863 (-1.8)	862 (-3.1)	830 (-4.7)	854 (0.0)	864 (-0.1)	854 (-0.7)	866 (-0.6)	858 (-0.5)	870 (0.9)
수 출	대구		7,491 (-7.6)	6,265 (-16.4)	1,775 (-7.8)	1,858 (5.7)	1,954 (65.1)	1,914 (23.6)	670 (55.0)	704 (30.9)	576 (31.5)	633 (10.7)
	경북		37,712 (-7.8)	37,096 (-1.6)	11,005 (11.3)	10,311 (14.3)	10,320 (31.9)	11,117 (20.3)	3,347 (23.3)	3,518 (11.5)	3,764 (36.9)	3,835 (14.9)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 농림·어업(-62.1%)은 감소하였으나, 제조업(5.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5%)의 증가로 지역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정밀화학원료(177.4%), 섬유 및 화학기계(327.5%) 등 증가로 자동차 부품(-5.1%), 농기계(-8.8%) 등의 감소에도 전체 수출 증가
- 경북: 생산 감소(-6.0%), 고용 증가(0.6%), 수출 증가(14.9%)
 - 주요 업종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2.9%), 1차 금속 제조업(-5.7%), 자동차 및 트레일러(-19.2%) 등의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감소세
 - 농림·어업(0.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9%)의 증가로 전년동월비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수출 상위 품목인 무선통신기기(96.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18.1%) 등은 증가하였으나, 철강판(-4.4%), 광학기기(-14.8%), 반도체(-11.4%) 등의 감소로 지역 수출 증가폭 축소

(5) 동남권

- 부산: 생산 감소(-0.4%), 고용 증가(1.5%), 수출 증가(31.4%)
 - 주요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2.8%) 등의 감소로 전체 생산 다소 감소
 - 제조업(-5.3%)은 감소하였으나, 농림·어업(57.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2.4%)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상위수출품인 자동차(578.0%), 철강판(73.2%), 철강관 및 철강선(22.2%),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199.3%) 등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
- 울산: 생산 감소(-11.6%), 고용 감소(-0.4%), 수출 증가(10.6%)
 - 대표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25.7%) 등에서 감소하며 지역 전체 생산 감소 전환
 - 농림·어업(14.3%), 제조업(2.5%)은 증가하였으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1.8%) 부문의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감소세
 - 상위수출품인 자동차(3.8%), 석유제품(63.6%), 합성수지(53.3%), 동제품(72.7%) 등 품목의 증가로 전체 수출 증가세

동남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생 산	부 산	기계 및 장비	6.4	-3.6	-23.1	-17.3	-8.4	6.8	-19.5	6.8	-6.0	18.9
		자동차 및 트레일러	-13.0	-19.2	-26.5	-11.1	14.2	1.4	18.0	0.4	7.2	-2.8
		1차 금속 제조업	-0.2	-7.7	-11.3	-9.9	-5.3	4.6	1.6	0.4	12.1	2.5
	울 산	자동차 및 트레일러	4.9	-9.8	-1.2	20.1	22.0	-7.6	19.8	-5.5	18.1	-25.7
		화학제품 외	0.3	-2.8	-0.2	2.1	8.7	9.7	8.9	11.8	8.8	8.7
		석유정제품	-3.1	-6.1	-7.6	-12.4	-4.5	0.0	-0.1	-2.5	0.5	2.5
	경 남	기타 운송장비	42.0	-12.9	-27.6	-33.9	-24.6	-21.6	-17.8	-23.3	-15.2	-25.2
		기계 및 장비	-6.9	-9.8	-2.0	-1.2	15.0	11.6	12.5	6.9	30.4	2.0
		금속가공제품	-16.0	-1.7	-1.8	-6.2	-9.7	-7.9	-15.2	-12.6	0.2	-9.5
고 용	부 산	농림·어업	7 (-30.0)	7 (0.0)	8 (0.0)	8 (0.0)	10 (42.9)	12 (71.4)	12 (71.4)	13 (85.7)	12 (71.4)	11 (57.1)
		제조업	284 (-0.7)	255 (-10.2)	250 (-5.3)	252 (-3.4)	244 (-5.4)	237 (-5.6)	235 (-9.6)	238 (-6.7)	239 (-4.4)	234 (-5.3)
		SOC·서비스	1,385 (1.8)	1,378 (-0.5)	1,391 (-2.2)	1,358 (-1.8)	1,417 (4.9)	1,433 (3.4)	1,434 (4.9)	1,435 (4.1)	1,440 (3.7)	1,424 (2.4)
	울 산	농림·어업	6 (0.0)	7 (16.7)	7 (0.0)	6 (-14.3)	6 (-14.3)	7 (0.0)	7 (0.0)	7 (0.0)	8 (33.3)	8 (14.3)
		제조업	176 (-4.9)	162 (-8.0)	160 (-5.9)	166 (-1.2)	162 (1.3)	163 (2.5)	158 (0.0)	161 (0.0)	164 (3.8)	162 (2.5)
		SOC·서비스	389 (1.6)	392 (0.8)	392 (-2.0)	377 (-3.3)	384 (-1.3)	389 (-2.0)	385 (-1.8)	386 (-2.3)	386 (-2.8)	393 (-1.8)
	경 남	농림·어업	178 (-2.7)	184 (3.4)	181 (0.6)	173 (-1.7)	207 (8.4)	225 (19.7)	220 (8.9)	220 (15.2)	228 (21.3)	226 (22.2)
		제조업	396 (-5.3)	399 (0.8)	382 (-5.7)	381 (-7.1)	380 (-6.6)	370 (-7.0)	384 (-5.4)	376 (-7.2)	365 (-9.4)	370 (-4.1)
		SOC·서비스	1,173 (2.5)	1,145 (-2.4)	1,159 (-1.4)	1,128 (-1.1)	1,175 (4.3)	1,164 (1.0)	1,168 (2.9)	1,168 (1.7)	1,161 (0.7)	1,164 (0.5)
수 출	부 산		13,924 (-3.4)	11,320 (-18.7)	3,028 (-16.2)	3,327 (8.7)	3,917 (59.5)	3,824 (37.8)	1,360 (68.9)	1,302 (36.3)	1,194 (47.6)	1,328 (31.4)
	울 산		69,530 (-0.9)	56,091 (-19.3)	15,083 (-13.1)	16,520 (5.4)	18,732 (65.7)	18,377 (31.0)	6,611 (75.2)	6,712 (45.6)	5,599 (42.4)	6,066 (10.6)
	경 남		39,353 (-2.2)	35,893 (-8.8)	10,139 (7.6)	10,792 (5.6)	9,261 (20.1)	9,393 (20.0)	3,524 (18.5)	3,531 (17.0)	2,751 (37.3)	3,111 (10.8)

자료: 통계청, 「공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율,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

- 경남: 생산 감소(-8.3%), 고용 증가(1.8%), 수출 증가(10.8%)
 - 주요 업종인 기타 운송장비(-25.2%), 금속가공제품(-9.5%) 등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전환
 - 제조업(-4.1%)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나, 농림·어업(22.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0.5%)에서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
 - 전월비 레일 및 철구조물(1,246.2%) 수출이 급증하였으나, 지역 최대 수출품목인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1.5%)과 함께 자동차부품(-11.2%), 원동기 및 펌프(-0.3%) 등의 감소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폭 축소

(6) 강원·제주권

- 강원: 생산 감소(-14.1%), 고용 증가(3.1%), 수출 증가(31.5%)
 - 대표 업종인 비금속 광물제품(-9.7%), 식료품 제조업(-26.3%), 음료 제조업(-14.6%) 등 생산이 감소 전환하며 지역 전체 생산 감소
 - 농림·어업(-12.9%)은 감소하였으나, 제조업(1.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5.0%)의 증가로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
 - 지역 상위 수출품인 전자응용기기(22.2%), 비누치약 및 화장품(343.3%), 합금철선철 및 고철(217.2%) 등의 증가로 지역 전체 수출 증가세
- 제주: 생산 감소(-5.3%), 고용 감소(-0.5%), 수출 증가(41.2%)
 - 주요 업종인 음료 제조업(-9.8%), 식료품 제조업(-14.7%), 비금속 광물제품(-6.1%) 등의 동반 감소로 지역 전체 생산 감소 전환
 - 제조업(7.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3.1%)은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16.4%) 감소로 전체 취업자 수 감소
 - 지역 수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124.6%)의 증가로 어류(-5.5%), 기호식품(-49.5%) 등의 감소에도 전체 수출 증가

강원·제주권 주요 동향

단위: 천 명, 백만 달러, %

		주요업종(품목)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생 산	강 원	비금속 광물제품	-4.7	-4.6	-2.4	-4.2	-4.8	4.3	-4.3	3.3	22.8	-9.7
		식료품	5.1	-2.0	3.6	2.3	0.3	-8.0	1.6	-2.8	11.9	-26.3
		음료	7.9	-4.2	-14.9	-5.6	-12.0	-9.1	-7.8	-7.5	-5.9	-14.6
	제 주	음료	5.4	-0.7	33.2	23.4	-12.6	4.0	-6.6	3.2	17.8	-9.8
		식료품	-6.3	-2.5	-5.8	-15.1	-1.4	-9.1	-5.1	-16.8	7.5	-14.7
		비금속 광물제품	-12.8	-28.8	-17.0	-6.8	66.6	-16.2	26.4	-21.9	-19.2	-6.1
고 용	강 원	농림·어업	92 (5.7)	82 (-10.9)	67 (-25.6)	46 (-27.0)	75 (-27.2)	82 (-14.6)	80 (-22.3)	83 (-17.0)	82 (-14.6)	81 (-12.9)
		제조업	56 (7.7)	57 (1.8)	54 (-10.0)	55 (-11.3)	54 (-3.6)	55 (0.0)	55 (0.0)	54 (-3.6)	55 (-1.8)	56 (1.8)
		SOC·서비스	658 (2.3)	649 (-1.4)	658 (0.3)	636 (0.5)	697 (7.6)	697 (5.8)	702 (7.0)	701 (7.2)	696 (4.8)	692 (5.0)
	제 주	농림·어업	67 (13.6)	74 (10.4)	75 (5.6)	71 (-4.1)	68 (-9.3)	62 (-15.1)	68 (-5.6)	64 (-12.3)	62 (-12.7)	61 (-16.4)
		제조업	12 (0.0)	12 (0.0)	14 (16.7)	13 (8.3)	14 (27.3)	15 (25.0)	15 (36.4)	16 (33.3)	15 (25.0)	15 (7.1)
		SOC·서비스	303 (0.7)	292 (-3.6)	295 (-3.6)	292 (-0.7)	306 (7.7)	302 (3.1)	304 (6.3)	299 (2.7)	304 (2.7)	303 (3.1)
수 출	강원	2,088 (-0.4)	2,023 (-3.1)	592 (11.0)	631 (34.7)	658 (47.5)	720 (39.4)	206 (25.6)	251 (46.6)	218 (41.1)	251 (31.5)	
	제주	149 (-18.3)	155 (4.0)	54 (13.4)	45 (16.9)	59 (92.7)	57 (80.5)	21 (101.5)	19 (145.2)	20 (82.8)	19 (41.2)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무역협회.

주: 생산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고용은 취업자 수, 수출은 수출실적.